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 체 사 상 으 로
튼 튼 히 무 장 하 자 !

로동신문

조 선 로 동 당 중 앙 위 원 회 기 관 지

제285호 【루계 제23237호】 주체99 (2010) 년 10월 12일 (화요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사상과 령도를 한마음
한뜻으로 받들어나가자 !

위 대 한 령 도 자 김 정 일 동 지 께 서
중 국 공 산 당 대 표 단 을 접 견 하 시 였 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신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11일 우리 나라를 방문하고있는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중앙정법위원회 서기인 주영강동지를 단장으로 하는 중국공산당대표단을 접견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후보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비서들인 김영일동지, 김양건동지가 여기에 함께 참가하였다.

석상에서 주영강동지는 호금도총서기동지를 비롯한 중국공산당 중앙령도집단을 대표하여 조선로동당대표자회가 성과적으로 진행되고 존경하는 **김정일**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총비서로 변함없이 높이 추대되신것과 조선로동당창건 65돐을 다시금 열렬히 축하하고 대표단이 준비하여온 선물을 드리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이에 사의를 표하시고 호금도총서기동지를 비롯한 중국공산당 중앙령도집단에 인사를 전하신 다음 주영강동지와 따뜻하고 친선적인 담화를 하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접견을 마치신 후 손님들을 위하여 오찬을 마련하시였다.

오찬에는 대표단 단장인 주영강동지와 함께 대표단성원들인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대외련락부장 왕가서동지, 길림성당위원회 서기 손정재동지, 우리 나라 주재 중화인민공화국 특명전권대사 류홍재동지,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대외련락부 부부장 류결일동지,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외사판공실 부주임 구원평동지, 외교부 부부장 장지군동지, 상무부 부부장 진건동지, 료녕성당위원회 부서기 진희동지, 흑룡강성당위원회 부서기 두우신동지와 그밖의 수원들이 초대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내각부총리인 강석주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후보위원이며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인 장성택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후보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비서들인 김영일동지, 김양건동지와 관계부문 일군들이 오찬에 참가하였다.

오찬회는 화기애애한 분위기속에서 진행되였다.

본사정치보도반

위 대 한 령 도 자 김 정 일 동 지 께 서
중 국 공 산 당 대 표 단 을 접 견 하 시 였 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뽈스까주체사상연구조직대표단이 선물을 올리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조선로동당창건 65돐에 즈음하여 우리 나라를 방문하고있는 뽈스까주체사상연구조직대표단이 선물을 올리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올리는 선물을 야쎄크 뽀네베르스끼단장이 10일 해당 부문 일군에게 전달하였다.

본사기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중국공산당 길림성위원회 서기와 주체사상국제연구소 리사일행, 뽈스까주체사상연구조직대표단, 중국 홍콩봉황위성TV, 일본 이노끼게놈련합주식회사 회장이 꽃바구니와 선물을 올리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우리 나라를 방문하고있는 중국공산당 길림성위원회 서기가 선물을 올리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올리는 선물을 손정재 서기가 11일 해당 부문 일군에게 전달하였다.

⁂ ⁂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조선로동당창건 65돐에 즈음하여 우리 나라를 방문하고있는 주체사상국제연구소 리사일행이 꽃바구니를, 뽈스까주체사상연구조직대표단이 선물을 올리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올리는 꽃바구니와 선물을 가마꾸라 다까오리사와 야쎄크 뽀네베르스끼 단장이 10일 해당 부문 일군에게 각각 전달하였다.

⁂ ⁂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조선로동당창건 65돐에 즈음하여 중국 홍콩봉황위성TV에서 선물을 보내여왔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올리는 선물을 우리 나라를 방문하고있는 왕기언 중국 홍콩봉황위성TV 집행부총재 겸 중어방송국 국장이 11일 해당 부문 일군에게 전달하였다.

⁂ ⁂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조선로동당창건 65돐에 즈음하여 우리 나라를 방문하고있는 일본 이노끼게놈련합주식회사 회장이 선물을 올리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올리는 선물을 이노끼 간지회장이 11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후보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인 김영일동지에게 전달하였다.

본사기자

조 선 로 동 당 창 건 65돐 경 축
음 악 무 용 종 합 공 연 진 행

【평양 10월 11일발 조선중앙통신】조선로동당창건 65돐을 경축하는 국립민족예술단의 음악무용종합공연이 11일 동평양대극장에서 진행되였다.

공연장소는 희세의 선군령장, 정치원로이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조선로동당의 최고수위에 변함없이 높이 모신 크나큰 영광을 안고 우리 당의 창건기념일을 대정치축전으로 뜻깊게 기념한 환희와 격정으로 세차게 설레이고있었다.

당과 군대, 국가의 책임일군들과 우당위원장, 당, 무력, 정권기관, 근로단체, 성, 중앙기관 일군들, 시내 근로자들이 공연을 관람하였다.

조선로동당창건 65돐을 경축하기 위하여 사회주의조국에 온 재일본조선인축하단을 비롯한 여러 지역의 해외동포축하단, 대표단, 방문단성원들과 반제민족민주전선 평양시부 대표가 공연을 보았다.

주조 여러 나라 외교대표들과 국제기구대표들, 외국손님들이 공연에 초대되였다.

공연무대에는 녀성독창 《김일성장군님은 우리의 태양》, 《당을 노래하노라》, 녀성4중창 《번영하여라 로동당시대》, 녀성3중창 《선군승리 옹헤야》, 무용 《양산도》, 녀성독창 《선군의 그 길을 생각할수록》, 합창 《영광을 드리자 위대한 우리 당에》를 비롯한 다채로운 종목들이 올랐다.

출연자들은 주체사상, 선군사상의 기치밑에 혁명적당건설위업을 개척하고 이끄시여 선군조선의 부강번영의 만년토대를 마련하여주신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조선로동당을 영원한 수령의 당으로, 선군혁명의 강위력한 향도적력량으로 강화발전시키신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불멸의 혁명업적을 열렬히 칭송하였다.

승리와 영광으로 빛나는 조선로동당의 자랑찬 투쟁행로를 예술적화폭으로 보여주는 공연을 통하여 관람자들은 백두의 천출위인들을 모시여 우리 당이 강하고 선군조선의 존엄과 영예가 최상의 경지에서 떨쳐지며 김일성민족의 미래가 끝없이 밝고 창창하다는것을 절감하였다.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이 땅우에 륭성번영의 로동당시대가 펼쳐져 인민의 천만가지 리상이 활짝 꽃펴나는 내 조국의 현실을 감명깊게 노래한 가야금병창 《비날론 삼천리》, 혼성2중창과 합창 《주체철 제일이야》, 가무 《돌파하라 최첨단을》, 녀성6중창과 가야금병창 《행복의 니나니 난노》, 합창 《강성부흥아리랑》 등은 관람자들의 심금을 뜨겁게 울려주었다.

관람자들은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전설적인 빨찌산식강행군길을 끊임없이 이어가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에 대한 다함없는 감사의 정을 금치 못하였으며 온 나라 인민이 어머니당의 품속에서 만복을 누려갈 강성대국의 휘황한 래일을 굳게 확신하였다.

공연은 관람자들의 심장마다에 조선로동당을 따르는 길에 백전백승이 있고 강성번영이 있다는 진리를 더욱 깊이 새겨주었으며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두리에 굳게 뭉쳐 향도의 당을 위해 힘차게 싸워나갈 철석의 신념과 의지를 안겨주었다.

백 두 산 3 대 장 군 께
에꽈도르 《루이스 바르가스 또레스》 에스메랄다스기술종합대학에서 수여해드리는 명예교수칭호를 전달하는 의식 진행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께 조선로동당창건 65돐에 즈음하여 에꽈도르 《루이스 바르가스 또레스》 에스메랄다스기술종합대학에서 수여해드리는 명예교수칭호를 전달하는 의식이 11일 인민문화궁전에서 진행되였다.

여기에는 문재철 조선대외문화련락협회 부위원장, 서호원 조선에꽈도르친선협회 위원장, 관계부문 일군들과 조선로동당창건 65돐 경축행사에 참가하기 위하여 우리 나라를 방문하고있는 알폰쏘 무르게이띠오 에꽈도르 《루이스 바르가스 또레스》 에스메랄다스기술종합대학 부총장과 일행이 참가하였다.

백두산3대장군께 수여해드리는 명예교수칭호증서를 알폰쏘 무르게이띠오 부총장이 문재철 부위원장에게 전달하였다.

본사기자

평 양

조 선 로 동 당 총 비 서 이 시 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신
김 정 일 각 하 께

존경하는 각하

저희들은 조선로동당창건 65돐을 맞는 뜻깊은 시기에 각하께서 조선로동당 총비서로 또다시 높이 추대되신데 대하여 충심으로 되는 열렬한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은 이번에 단마르크의 수도 코뻰하븐에서 조선로동당창건 65돐에 즈음하여 조선에 관한 유럽지역토론회를 성과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조선로동당의 자랑스러운 력사와 김일성주석과 김정일각하의 빛나는 업적 그리고 조선로동당이 세기를 이어 승리만을 떨쳐온 근본비결과 원천에 대하여 더 잘 알게 한 의의있는 계기로 되였습니다.

조선로동당의 65년력사는 탁월한 수령들의 현명한 령도밑에 인민대중을 하나로 묶어세워 부닥치는 시련과 난관을 파감히 뚫고 존엄높고 강위력한 사회주의국가를 일떠세운 위대한 향도자의 영광스러운 력사입니다.

조선로동당은 주체사상의 기치를 높이 들고 멀고도 험난한 길을 걸어오는 기간 인민의 자유와 행복을 위하여, 조국의 륭성과 번영을 위하여 력사에 길이 빛날 업적을 쌓아올렸습니다.

65성상의 장구한 나날 그 누구도 걸어보지 못한 길을 개척하고 그 누구도 겪어보지 못한 시련과 난관을 헤치며 나라의 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한 광활한 길을 열어놓은것으로 하여 조선로동당은 전체 조선인민과 세계 진보적 인류의 절대적인 지지와 신뢰를 받고있습니다.

조선로동당이 이룩한 모든 성과와 경험들은 전적으로 위대한 수령들이신 김일성주석과 김정일각하의 탁월하고도 세련된 령도의 고귀한 결실이며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위하여 투쟁하는 모든 당들이 따라배워야 할 귀중한 본보기로 됩니다.

희세의 정치가이시며 걸출한 령도자이신 김정일각하를 진두에 모시여 조선로동당은 필승불패의 혁명적당으로서의 자기의 위력을 더욱 높이 떨쳐갈것입니다.

오늘 조선로동당과 조선인민은 김일성주석각하의 탄생 100돐이 되는 2012년에 사회주의강성대국의 대문을 활짝 열어제낄 목표를 제시하고 총진군을 벌려나가고있습니다.

우리는 각하의 현명한 령도밑에 조선인민이 온갖 애로와 난관을 용감하게 이겨내고 사회주의강성대국의 높은 령마루에 반드시 올라서리라고 확신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기와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각하께서 이끄시는 조선로동당과 조선인민의 정의의 위업에 전적인 지지성원과 굳은 련대성을 보낼것입니다.

우리는 조선로동당창건 65돐을 열렬히 축하하면서 조선로동당의 강화발전과 인류자주위업의 승리적전진을 위하여 존경하는 김정일각하께서 부디 건강하시기를 충심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숭고한 경의를 표합니다.

조선로동당창건 65돐에 즈음하여 진행된 조선에 관한 유럽지역토론회 참가자들을 대표하여 김일성주석 탄생 100돐기념

북유럽준비위원회 공동위원장, 단마르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친선협회 위원장
안 데 르 스 크 리 스 텐 센

2010년 10월 2일 코뻰하븐

조선로동당은 진보적인류의 유일한 희망의 등대
조선에 관한 유럽지역토론회 단마르크에서 진행

조선로동당창건 65돐에 즈음하여 조선에 관한 유럽지역토론회가 2일 단마르크 코뻰하븐에서 진행되였다.

토론회장정면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초상화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초상화가 모셔져있었으며 우리 나라 기발이 드리워져있었다.

토론회장에는 위대한 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불후의 고전적 로작들과 불멸의 당건설령도업적을 보여주는 사진들 그리고 강성대국건설을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을 소개하는 사진들이 전시되여있었으며 《조선로동당창건 65돐을 열렬히 축하한다!》, 《유럽인민들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민사이의 친선 만세!》, 《조선에 관한 유럽지역토론회, 2010년 10월 2일, 단마르크 코뻰하븐》이라고 쓴 글발들이 나붙어있었다.

토론회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 탄생 100돐기념 국제준비위원회 공동위원장들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의 친선 및 문화협조 로씨야협회 위원장, 프랑스조선친선협회 대표위원장, 조선의 통일과 평화를 위한 국제련락위원회 서기장과 스웨리예조선친선협회, 핀란드조선협회, 단마르크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친선협회, 노르웨이공산당 외스트폴드주위원회, 스위스조선위원회, 우크라이나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협회, 김일성명칭 전국벨라루씨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친우협회 상설상무위원회, 조선과의 친선을 위한 영국협회, 에스빠냐에 본부를 둔 조선과의 친선협회, 기타 단마르크의 정당, 단체 인사들, 군중이 참가하였다.

단마르크를 방문한 우리 나라 대외문화련락위원회 친선대표단이 토론회에 초대되였다.

참가자들은 한결같이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총비서로 변함없이 높이 추대되신것은 조선인민뿐아니라 세계자주화를 위하여 투쟁하는 진보적인류의 대경사이라고 하면서 경애하는 장군님께 최대의 영광과 가장 뜨거운 인사를 드리였다.

토론회에서는 스웨리예조선친선협회 위원장이 기조보고를 하였다.

그는 세계에 조선로동당처럼 인민대중의 절대적인 지지와 신뢰를 받는 당은 없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조선로동당은 65년간 옳바른 전략전술과 로선, 정책으로 조선인민을 령도해오면서 그들에게 위대한 승리를 떨치는 영웅적인민의 긍지와 자부심을 안겨주고 조선을 그 어떤 시련과 대적앞에서도 끄떡하지 않는 자주의 강국으로 전변시켰다.

조선혁명은 전인미답의 간고한 혁명이였으며 그앞에는 기성리론과 경험으로는 풀수 없는 많은 문제들이 제기되였다.

6면으로 계속

향도의 당을 따라 나아가는 우리의 앞길은 밝고 창창하다

당조직들의 전투력을 백방으로

당창건 65돐을 맞이한 천만군민의 가슴가슴은 위대한 당의 향도따라 강성대국의 래일에로 폭풍쳐 내달리는 한없는 긍지와 자부심으로 꽉 차넘치고있다. 특히 대중을 투철한 수령결사옹위의 전위투사집단으로 키우며 대고조에로 힘있게 추동해온 각지 당일군들의 감회는 참으로 크다.

각지 당일군들은 오늘의 대고조에서 자기들의 위치와 임무의 중요성을 깊이 자각하고 당조직들의 전투력을 백방으로 다지기 위해 피타는 사색과 열정을 바쳐가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의 당조직들은 혁명하는 당의 전투적인 조직답게 쇠소리나게 일하는 조직, 투쟁하는 조직으로 되여야 합니다.》

함경북도당위원회에서는 우리 당의 위대성교양을 주선으로 틀어쥐고 대중의 심장에 투쟁의 불을 활활 지펴올리고있다.

어랑천발전소건설장을 비롯한 주요전투장들에 달려나간 도당위원회 일군들은 우리 당을 영원히 김일성동지의 당으로 강화발전시키는것을 자신의 필생의 과업으로 내세우시고 그 실현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치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업적을 대중에게 깊이 새겨주고있다.

김책제철련합기업소 당위원회 일군들은 절세의 위인들의 불멸의 당건설업적을 대중속에 깊이 체득시키는데서 모범을 보이고있다.

얼마전 용광로직장에 나간 당위원회의 한 일군은 우리 당을 수령을 중심으로 하나의 사상의지로 굳게 뭉친 사상적순결체, 마음만 먹으면 못해내는것이 없는 불패의 전투대오로 비상히 강화발전시키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업적에 대하여 알기 쉽게 해설해주었다. 그러면서 그는 김철의 로동계급을 대고조의 선봉에 내세워주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믿음에 드높은 철강재증산으로 보답하자고 격조높이 호소하였다.

생동한 자료들을 가지고 격동적인 현실의 요구에 맞게 패기있게 해나가는 일군들의 교양사업은 로동계급의 심장을 팡팡 울려주고 철강재생산에서 보다 큰 혁신과 앙양을 일으킬 결심을 더욱 굳게 다지게 하였다.

강원도당위원회 일군들도 당원들과 근로자들속에서 여러가지 참신하고 실효성있는 교양사업들을 활발히 벌리면서 대고조격전을 이끌어나가고있다.

문천시당위원회에서는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조선로동당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당이다》**를 비롯하여 경애하는 장군님의 당건설사상과 리론이 집대성되여있는 불후의 고전적로작들에 대한 학습을 실속있게 진행하도록 조직사업을 치밀하게 짜고들고있다.

시안의 공장, 협동농장들에 나간 시당위원회일군들은 해당 단위 당조직들에서 경애하는 장군님의 당건설업적을 내용으로 한 도서들을 통한 교양사업도 활발히 벌려 제품생산과 당면한 가을걷이전투에서 높은 실적을 이룩해나가도록 하고있다.

함경남도당위원회에서는 공장, 기업소, 협동농장들에서 혁명전적지, 혁명사적지들에 대한 참관사업을 널리 진행하여 누구나 절세의 위인들의 불멸의 당건설업적을 잘 알고 끝없이 빛내여나가게 하고있다.

자강도와 황해남도, 황해북도, 량강도를 비롯한 당조직들에서도 우리 당의 위대성교양을 다양한 형식과 방법으로 실속있게 진행함으로써 대고조전투장들에서 총공격전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도록 하고있다.

본사기자 전 경 서

당앞에 결의한 철강재생산계획을 기어이 수행할 신심과 락관에 넘쳐있는 로동계급
—김책제철련합기업소에서—
본사기자 전 성 남 찍음

당의 령도밑에 전성기를 펼친 선군문화

세계를 향하여 파감히 돌진하라!

심장을 팡팡 두드리는 당의 전투적호소따라 온 나라에 최첨단돌파의 기상이 세차게 나래치는 가운데 뜻깊은 올해에 과학과 교육, 문학예술과 체육부문에서도 강성대국건설을 힘있게 추동하는 성과들이 련이어 이룩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위대한 당의 령도밑에 우리 군대와 인민은 선군의 기치높이 사나운 풍파를 헤치고 력사의 기적을 창조하며 영광스러운 승리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당대표자회와 당창건 65돐을 맞으며 《련하기계》개발자들은 CNC공작기계기술에서 가장 앞선 단계에 이른 새형의 9축선삭가공중심반을 개발하는데 성공하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품속에서 튼튼히 다져온 강의한 정신력과 기술개발력을 남김없이 발휘하면서 구상으로부터 시작하여 설계와 제작에 이르기까지의 최첨단 CNC공작기계개발의 모든 단계들에서 한번의 실패도 없이 단번성공을 이룩함으로써 그들은 온 나라에 또 하나의 최첨단돌파의 대경사를 불러왔다.

우리의 축포개발집단이 최첨단을 돌파하면서 1년 남짓한 기간에 우리 인민의 사상미학적요구와 지향에 맞게 프로그람과 조종장치기술이 100% 우리의것으로 되여있고 생산 전과정이 우리 식으로 된 현대적인 새 축포를 개발생산하는데 성공한 격동적인 성과를 이룩하고 10월의 경축광장에 들어서는 자랑찬 위훈을 창조하였다.

유서깊은 롱남산마루에 대규모의 자료기지와 최첨단정보기술체계에 의거하여 교육과학사업과 국제적인 학술교류를 원만히 할수 있는 최신식전자도서관이 일떠서 어버이수령님의 존함으로 자랑높은 김일성종합대학이 더욱 빛나고 선군조국을 교육강국, 인재대국으로 건설하려는 우리 당의 구상이 더 활짝 꽃펴날수 있게 되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크나큰 은정속에 국립연극극장이 선군시대의 또 하나의 기념비적창조물로 솟아올라온 나라 인민들에게 커다란 기쁨을 안겨주고있다.

강성대국《산울림》으로 선군의 대지가 세차게 진동하고있다.

1960년대에 나온 경희극《산울림》을 재창조하여 널리 공연할데 대한 경애하는 장군님의 가르치심을 받들고 국립연극단의 창조집단은 21세기의 혁신적안목과 1970년대 창조방식, 투쟁기풍, 열렬한 시대옹호정신으로 4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에 사상예술성이 완벽한 훌륭한 경희극을 새롭게 창조하는 놀라운 성과를 이룩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선군시대 문학예술을 대표하는 또 하나의 기념비적걸작으로 높이 평가해주신 김일성상계관작품 경희극《산울림》은 수도 평양과 해주, 사리원, 남포, 안주, 희천, 신의주, 원산, 함흥, 혜산, 청진에서 대성황리에 공연되여 각지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당창건 65돐을 빛나는 로력적성과로 맞이하기 위한 총공격전에로 힘있게 떠밀어주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최근에 진행한 예술선전대공연중에서 제일 훌륭한 공연이라고 높이 평가해주신 조선인민군 제963군부대예술선전대공연, 김일성조선의 천만년 미래를 펼쳐주신 우리 장군님의 불멸의 선군령도업적을 격조높이 노래한 음악무용대공연《선군승리 천만리》 그리고 예술영화《해빛 밝아라》 제1부, 재창조된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아리랑》등 오늘의 대고조진군에 새로운 활력을 부어주는 선군문학예술창조의 열풍도 세차게 일어번졌다.

당창건 65돐을 승리자의 대축전으로 빛내이기 위한 총공격전이 줄기차게 벌어지는 속에서 진행된 제2차 4월의 봄 인민예술축전, 김정숙평양제사공장 예술소조원들과 평양방직공장 기동예술선동대원들의 공연, 평양시내 대학생들의 예술소조공연 등은 혁명적군인문화에 바탕을 둔 선군시대 새 문화의 참모습을 잘 보여주고 군중문화예술발전을 힘있게 추동하였다.

태양절기념 축포야회《수령님 념원이 꽃피는 내 나라》, 조선로동당창건 65돐 경축축포야회, 조선로동당창건 65돐 대경축야회《번영하라 로동당시대》가 성대히 진행되여 어버이수령님을 영원한 태양으로 모시고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령도따라 주체의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위업을 빛나게 실현하고야말 천만군민의 억척같은 신념과 의지를 힘있게 과시하였다. 선군조선의 체육인된 한없는 긍지를 안고 훈련장마다에서 애국의 구슬땀을 아낌없이 뿌려온 우리 선수들이 사격, 태권도, 권투, 력기 등 세계와 아시아의 체육경기무대들에서 승리의 금메달로 조국의 영예를 온 세상에 힘있게 떨치는 훌륭한 성과들을 이룩하였다.

우리 당의 령도밑에 줄기찬 발전의 길을 이어오면서 뜻깊은 올해에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대혁신, 대비약의 기상이 세차게 나래치게 한 선군문화의 거대한 생활력은 끊임없는 선군장정의 길에서 사회주의문화건설의 앞길을 더욱 환히 밝혀주시고 승리에로 현명하게 이끌어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령도의 빛나는 결실이다.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을 조선로동당 총비서로 변함없이 높이 모신 크나큰 영광과 행복에 넘쳐 당창건 65돐을 승리자의 대축전으로 성대히 경축한 우리 군대와 인민은 위대한 향도의 당, 조선로동당의 령도따라 선군문화의 위력을 더욱 높이 떨치며 이 하늘아래, 이 땅우에 기어이 사회주의강성대국을 일떠세울 열화같은 신심과 락관에 충만되여있다.

본사기자 오 철 룡

생산활성화의 동음을 높이 울리며

남흥청년화학련합기업소에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우리 당의 최고수위에 변함없이 높이 모시고 당창건 65돐을 뜻깊게 경축한 남흥청년화학련합기업소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이 우리 식의 주체적인 비료생산공정이 커다란 은을 내도록 최첨단돌파전을 힘있게 벌리면서 생산활성화의 동음을 높이 울려가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경제강국의 요새를 점령하자면 4대선행부문과 함께 기계, 화학, 건재, 광업 등 중공업부문 전반에서 대고조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펴올리며 증산하고 또 증산하여야 합니다.》

지난 6월 기업소를 찾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우리 식의 주체적인 비료생산공정에서 폭포처럼 쏟아지는 비료를 보시며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였으며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할데 대한 과업과 방도를 환히 밝혀주시였다.

련합기업소당위원회에서는 일군들이 경애하는 장군님의 현지말씀 관철에로 대중을 조직동원하는 화선식정치사업을 참신하게 벌리여 그들의 정신력을 총발동하고 생산조직과 지휘를 능동적으로, 창조적으로 하도록 하고있다.

련합기업소참모부에서는 현대화된 모든 생산공정들이 최신과학기술성과에 토대하여 정상운영되도록 경영활동을 보다 과학적으로 치밀하게 짜고들고있다. 일군들은 현장에 내려가 걸린 문제를 풀어주고 원료와 연료, 자재를 생산에 확고히 앞세워 보장하기 위한 대책을 빈틈없이 세우고있다. 이와 함께 모든 생산공정들을 과학기술적으로 완벽하게 꾸리기 위한 사업에 힘을 넣고 생산과 과학기술을 밀착시켜나가고있다.

암모니아직장의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이 인민생활향상에서 자기들이 지닌 임무의 중요성을 깊이 간직하고 주인다운 일본새를 발휘하고있다. 직장의 조작공, 운전공들은 설비관리, 기술관리를 잘하고 기술규정과 표준조작법의 요구를 엄격히 지켜 압축기를 비롯한 설비들의 정상가동을 보장해나가고있다. 특히 암모니아합성탑부분에 새 기술을 받아들여 종전보다 생산능률을 훨씬 높이고있다. 발생로직장의 로동자, 기술자들은 가스화대상건설의 나날에 새 기록을 창조하였던 그 기세로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을 힘있게 벌려 커다란 성과를 거두고있다.

선탄, 성형직장의 조작공, 운전공들도 주인다운 일본새로 일을 잘해나가고있다. 이들은 우리 식의 후민산련속생산공정을 확립한 자랑을 안고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기 위하여 지혜와 열정을 다 바쳐가고있다.

지식경제시대의 요구에 맞게 최첨단을 향하여 비약할데 대한 당의 요구를 심장에 새긴 가스청정직장의 로동자, 기술자들도 현대적설비에 정통하기 위하여 애써 노력함으로써 자체의 힘과 기술로 수많은 기술혁신안과 창의고안을 생산에 받아들이였다.

3페로직장의 로동자, 기술자들이 소문없이 큰일을 해제끼고있다. 이들은 열공학분야에서 최신과학기술로 되는 새로운 운전조작법을 받아들인 자랑을 안고 매일 맡겨진 계획을 어김없이 수행하고있다.

기업소의 공무부문의 로동자, 기술자들이 당이 안겨준 당력과 배짱으로 대담하게 일판을 벌리였다. 그들은 암모니아직장의 압축기능력제고를 위한 기술혁신과제를 스스로 맡아 불이 번쩍 나게 해제끼였다.

보수부문의 로동자, 기술자들도 올해에 또다시 경애하는 장군님을 기업소에 모시였던 크나큰 영광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설비의 만가동, 만부하를 보장하는데 자기들의 성실한 땀을 아낌없이 바쳐가고있다.

남흥의 로동계급은 당창건 65돐을 승리자의 대축전으로 빛내인 크나큰 민족적긍지와 자부심을 안고 주체비료생산활성화의 동음을 더 세차게 울리며 영웅적조선로동계급의 기상을 높이 떨쳐가고있다.

본사기자 명 흥 숙

수필

매 혹

조선로동당창건 65돐 대경축야회가 진행되는 김일성광장은 경애하는 장군님을 우리 당 총비서로 변함없이 높이 모신 기쁨과 영광으로 하여 세차게 끓어번지고있었다. 그 격정의 마당에 서서 하늘땅을 진감하는 만세소리, 노래소리를 듣느라니 나에게는 우리 당의 창건이 선포되던 65년전의 환호성이 다시금 들려오는것만 같았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 인민은 조선로동당을 자기의 정치적향도자로 믿고 당에 자기 운명을 전적으로 의탁하고있습니다.》

해방의 은인, 절세의 애국자이신 위대한 수령님을 우리 당의 수위에 높이 모시고 온 민족이 터쳐올린 그날의 만세소리는 새 조선을 받들어 모든것을 바쳐갈 인민의 뜨거운 맹세였다. 그 맹세를 안고 우리 인민은 모든것이 귀하고 모든것이 부족했지만 새 조국건설에로 질풍같이 노도쳐갔다.

정주기관구 로동계급은 안주탄광(당시)으로 달려가 전반적철도운행을 국내산 연료로 정상화할수 있는 전망을 열어놓았다. 장군님 주신 땅에서 농사를 지어 거두어들인 쌀을 애국미로 바치고싶은것이 바로 인민의 일편단심이였다.

그 불같은 마음은 력사에 류례없는 전승을 안아왔고 혁신이 혁신을 낳고 기적이 기적을 낳는 천리마시대를 탄생시켰다.

이 땅우에 아로새겨진 거창한 전변과 변혁의 력사, 거기에는 언제나 우리 당의 현명한 령도가 깃들어있었다.

그 어떤 천지풍파에도 끄떡없는 로숙하고 세련된 당, 생기발랄하고 전도양양한 로동당의 해발아래 우리 조국의 존엄과 영예는 더욱 높이 떨쳐졌다.

경애하는 장군님을 위대한 수령님의 유일한 후계자로 높이 모셔 우리 조국과 인민의 앞길에 수령복, 당복을 대를 이어 누려갈 영광과 행운이 기약되던 그날을 잊을수 없다.

우리 혁명의 창창한 래일을 락관하며 온 나라 인민이 감격의 환호를 터치던 그날의 환희에 찬 화폭이 눈앞에 어려온다.

조선로동당의 향도의 손길아래 우리는 얼마나 위대한 승리의 길을 걸어왔던가.

우리 인민은 당과 운명을 같이하며 고난의 행군을 이겨냈고 당의 구상을 받들어 세인을 놀래우는 기념비적창조물들을 일떠세웠다.

당의 령도밑에 우리 군대와 인민은 희천속도를 창조했고 선군의 총대높이 사회주의강성대국을 건설해가고있다.

우리의 위성이 하늘을 날고 최첨단돌파전의 열풍속에 마련된 CNC기술정복의 희한한 현실이며 주체철, 주체섬유, 주체비료가 폭포처 쏟아져내리는 이 민족사적사변들은 당의 두리에 굳게 뭉쳐 미래를 개척해나가는 우리 인민의 정신력이 안아온것이였다.

당의 현명한 령도따라 창조와 건설의 기적을 수놓아온 력사의 나날에 우리 인민은 주체의 전위대오로서의 조선로동당의 위력을 더욱 절감하게 되였으며 우리 당을 떠나 그 어떤 승리도 영광도 행복도 이룰수 없다는 투쟁과 생활의 진리를 심장깊이 아로새기게 되였다.

어머니당을 굳게 믿고 따르는 한마음, 이것은 세대와 세대를 이어가며 우리 인민이 간직하는 고결한 사상감정이며 불변의 신념이다.

어머니당—조선로동당에 운명도 미래도 다 맡기고 언제 어디서나 오로지 당의 숨결로만 살며 투쟁하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신뢰심이 우뢰와 같은 환호성으로 터져오르는 대경축야회장에서 우리는 무엇을 새기게 되였던가.

—우리에게는 향도의 당이 있다!

그렇다. 진정 조선로동당의 위대한 65년력사는 당에 대한 천만군민의 절대적인 신뢰와 충정의 력사이거니, 천만이 수령결사옹위의 총폭탄된 우리의 일심단결의 바탕은 위대한 당, 위대한 향도자에 대한 매혹인것이다.

본사기자 조 향 선

중국공산당대표단

대동강과수종합농장 참관

【평양 10월 11일발 조선중앙통신】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중앙정법위원회 서기인 주영강동지를 단장으로 하는 중국공산당대표단이 11일 대동강과수종합농장을 참관하였다.

손님들은 우리 인민에게 사철 신선한 과일을 먹이시려고 마음쓰시는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뜨거운 은정속에 훌륭히 일떠선 대청춘과원에 대한 해설을 들으면서 농장의 전경을 부감하였다.

이어 그들은 최신식설비들로 장비된 과일보관고와 모든 공정들이 하나의 자동흐름선체계로 이루어진 현대적인 사과말린편공장을 참관하였으며 살림집을 돌아보았다.

중국공산당대표단 귀국

【평양 10월 11일발 조선중앙통신】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의 초청에 의하여 우리 나라를 공식친선방문하였던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중앙정법위원회 서기인 주영강동지를 단장으로 하는 중국공산당대표단이 11일 귀국하였다.

비행장 국기게양대들에는 조선과 중국 두 나라 기발이 나붓기고있었다.

평양시내 근로자들이 비행장에 나와있었다.

비행장에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비서들인 김기남동지, 최태복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후보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인 김영일동지와 주영식 조선로동당 자강도위원회 책임비서, 김성남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 김성기 외무성 부상, 구본태 무역성 부상, 류홍재 주조 중화인민공화국 특명전권대사와 대사관성원들이 대표단을 전송하였다.

군중들은 두 나라 기발과 꽃다발을 흔들면서 대표단을 열렬히 환송하였다.

조선로동당창건 65돐 경축보고대회 및 보고회

각 도, 시, 군에서 진행

조선로동당 창건 65돐 경축보고대회 및 보고회가 9일 각 도, 시, 군에서 진행되였다.

보고대회 및 보고회들에는 지방당, 정권기관, 사회단체 일군들과 각계층 근로자들이 참가하였다.

해당 단위 책임일군들이 보고를 하였다.

보고자들은 경애하는 김정일동지를 조선로동당 총비서로 변함없이 높이 모신 격동적인 시기에 당창건 65돐을 맞이하는 온 나라 인민은 위대한 수령, 위대한 령도자를 진두에 모시고 백승을 떨쳐온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투쟁행로를 감회깊이 돌이켜보고있다고 말하였다.

그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조선혁명의 개척기에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자주적인 당건설방침을 제시하시였으며 항일대전의 불길속에서 마련하신 튼튼한 조직사상적기초와 혁명전통에 토대하여 주체34(1945)년 10월 10일 당창건의 력사적위업을 빛나게 실현하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조선로동당의 창건은 주체사상을 지도사상으로 하는 자주시대의 새로운 혁명적당의 탄생을 알리는 장엄한 선언이였으며 우리 인민이 자기의 강력한 정치적참모부를 가지고 당의 령도밑에 자주와 독립, 사회주의의 길을 따라 확신성있게 전진해나가는 끝없이 양양한 미래를 펼쳐놓은 특기할 사변이였다고 그들은 강조하였다.

우리 당의 65성상은 절세위인들의 불멸의 업적으로 빛나는 영광스러운 력사이라고 하면서 그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선로동당을 조직사상적으로 강화하고 대중적지반을 튼튼히 다지며 혁명과 건설에 대한 령도적역할을 높여나가도록 이끄신데 대하여 말하였다.

그들은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장구한 기간 당과 혁명을 진두에서 이끄시면서 어버이수령님의 당건설사상과 위업을 빛나게 계승발전시키시여 우리 당을 로숙하고 세련된 필승불패의 당으로 존엄떨치게 하시고 혁명과 건설에서 거창한 창조와 변혁이 일어나게 하시였다고 강조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탁월한 사상과 령도밑에 우리 당이 유일사상체계가 확고히 선 수령의 당, 주체의 선군혁명위업을 향도하는 백전백승의 당, 인민대중속에 깊이 뿌리박고 인민의 복리를 첫자리에 놓는 어머니당으로 위용떨치고있는데 대하여 그들은 언급하였다.

그들은 우리 당이 장구한 기간 혁명령도의 근본원칙을 철저히 구현하여 이 땅우에 인민대중중심의 우월한 사회주의제도를 건설하고 나라와 민족의 운명과 자주권을 영예롭게 수호하였으며 우리 조국을 존엄높은 정치사상강국, 강위력한 군사강국으로 만방에 위용떨치게 한데 대하여 말하였다.

그들은 당의 령도아래 선군의 불길속에서 다져온 불굴의 정신력과 정치군사적잠재력에 의하여 오늘 조국땅에는 최첨단을 돌파하며 주체철과 주체비날론, 주체비료생산을 비롯한 사변들이 다계단으로 일어나 인민의 리상과 포부가 훌륭히 실현되는 김일성조선의 일대 비약과 번영의 전성기가 펼쳐지고있다고 말하였다.

우리 당이 민족자주사상을 일관하게 구현하여 조국통일위업을 힘있게 전진시켜왔으며 자주, 평화, 친선의 리념밑에 나라의 대외관계를 확대발전시키고 우리 혁명의 국제적련대성을 강화한데 대하여 그들은 언급하였다.

보고자들은 위대한 사상과 령도로 반만년민족사에 일찌기 있어보지 못한 세기적기적과 변혁을 안아온 조선로동당의 성스러운 력사와 업적은 우리 혁명의 만년재보로, 백전백승의 기치로 영원히 빛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 혁명은 우리 당의 령도밑에 승리하여왔으며 앞으로도 우리 당의 령도밑에 승리적으로 전진하고 빛나게 계승완성될것이다.》

보고자들은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주체의 태양으로 높이 우러러모시고 우리 당을 영원히 수령님의 당으로 강화발전시키며 절세위인들의 불멸의 당건설업적을 대를 이어 빛내여나갈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그들은 모두가 투철한 수령결사옹위정신을 지니고 경애하는 김정일동지를 정치사상적으로, 목숨으로 견결히 옹호보위하며 혁명의 천하지대본인 수령, 당, 군대와 인민의 일심단결을 철통같이 다져나가야 할것이라고 말하였다.

당의 선군정치를 충직하게 받들어 온 사회를 주체사상, 선군사상으로 일색화하고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국방공업발전과 인민군대를 강화하는데 힘을 넣어 우리 혁명의 군사진지를 철벽으로 다지는데 적극 기여하여야 할것이라고 그들은 강조하였다.

그들은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후손답게 조선은 결심하면 한다는 확고한 신념과 불굴의 정신력으로 모든 전선에서 끊임없는 비약과 혁신을 일으키고 최첨단돌파전을 힘있게 벌려나감으로써 경제발전과 인민생활에서 결정적전환을 이룩하고 당의 강성대국건설구상을 빛나게 실현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온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반통일세력의 악랄한 도전과 새 전쟁도발책동을 짓부시고 북남공동선언의 기치밑에 나라의 자주적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나가야 할것이라고 그들은 말하였다.

보고자들은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의 두리에 일심단결하여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과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위하여,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억세게 싸워나갈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위대한 당을 받드는 군대와 인민의 불변의 신념과 의지의 화폭

조선로동당창건 65돐경축 김일성화김정일화전시회장에서

위인칭송의 꽃바다 끝없이 설레인다

10월의 강산에 태양칭송의 꽃바다, 위인흠모의 꽃바다가 설레이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조선로동당 총비서로 변함없이 높이 모신 크나큰 기쁨과 영광속에 평양에서는 조선로동당창건 65돐경축 김일성화김정일화전시회가 성황리에 진행되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 인민은 조선로동당의 령도에서 자기들의 광명한 미래를 내다보고있으며 당의 령도가 있는 한 주체의 혁명위업을 반드시 완성할수 있다는 필승의 신념을 간직하고 있다.》

전시회가 개막된 첫날부터 대동강반에 자리잡고있는 김일성화김정일화전시관으로는 절세의 위인들에 대한 다함없는 경모의 마음이 끝없이 물결쳐흐르고있다. 그 물결에 실리여 얼마전 우리도 김일성화김정일화전시관을 찾았다.

전시관의 2층에 들어서는 우리의 눈앞에 숭엄한 화폭이 펼쳐졌다. 온갖 꽃 만발한 아름다운 화원속에서 해빛같은 미소를 지으시는 어버이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자애로운 영상!

인민군군인들과 각계층 근로자들을 비롯한 참관자모두는 전시회장에 높이 모셔진 절세의 위인들의 자애로운 영상을 우러르며 주체형의 혁명적당, 조선로동당을 창건하시고 이 땅우에 자주, 자립, 자위로 부강번영하는 사회주의강국을 일떠세우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특출한 정치실력과 비범한 령도로 우리 당을 영원히 김일성동지의 당으로 빛내여주시며 주체의 강성대국 건설위업을 승리의 한길로 현명하게 령도하시는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불멸의 업적을 가슴뜨겁게 새겨안고있었다.

조선김일성화김정일화위원회 일군의 말에 의하면 이번 전시회에는 무력기관과 성, 중앙기관들 그리고 총련중앙상임위원회와 우리 나라에 주재하고있는 여러 나라 외교대표부 등 수십개 단위가 참가하였다고 한다.

전시관 2층은 조선인민군 김성덕소속부대, 조선인민군 최대일소속부대, 인민보안부를 비롯한 수많은 단위들에서 전시한 태양의 꽃들로 황홀경을 이루고있었다.

어느 전시대에나 력사적인 조선로동당창건 65돐을 맞으며 김일성화, 김정일화를 더 아름답게 피우기 위해 애써온 우리 군대와 인민의 티없이 맑고 깨끗한 마음이 뜨겁게 어려있어 참관자들은 선뜻 발걸음을 떼지 못하고있었다. 특히 혁명의 총대를 억세게 틀어쥐고 수령결사옹위의 제일선, 조국수호의 전초선에 서있는 우리 인민군장병들의 미더운 모습이 비껴있는 무력기관전시대는 뚜렷한 사상주제적내용과 풍부한 예술적형상으로 하여 더더욱 이채를 띠고있었다.

무력기관전시대들을 지나 수백상의 불멸의 꽃들로 류달리 아름답게 단장된 봉화지도국전시대 앞에 이른 우리는 원예사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들을수 있었다.

《우리 지도국에서는 뜻깊은 올해에 진행되는 이번 전시회준비에서 원예사, 판리원이 따로없었습니다. 김일성화, 김정일화는 우리 인민모두의 마음속에 뿌리를 내린 태양의 꽃이 아닙니까.》

우리 인민모두의 마음속에 뿌리내린 태양의 꽃!

어찌 이것이 그만의 심정이라고 하랴.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중앙위원회, 농업성, 채취공업성, 화학공업성, 경흥지도국, 상원세멘트련합기업소를 비롯한 수많은 단위의 전시대들에서도 우리는 경애하는 장군님을 굳게 믿고 따르며 장군님을 언제나 기쁨속에, 아름다운 꽃향기속에 모시려는 우리 인민의 열렬한 마음을 뜨겁게 새겨안을수 있었다.

우리 인민뿐아니라 해외동포들과 세계 진보적인민들의 다함없는 흠모와 신뢰의 정이 어려있는 전시대들도 참관자들에게 깊은 감명을 안겨주고있었다. 총련중앙상임위원회전시대에는 주체의 사회주의조국의 해외공민된 크나큰 민족적긍지와 자부심을 안고 경애하는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따라 애국애족의 한길을 변함없이 이어가려는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들의 굳센 신념과 의지가 뜨겁게 맥박치고있었다.

어버이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에 대한 세계 진보적인류의 높은 존경과 신뢰의 정이 위인칭송의 향기되여 흘러넘치는 외교단사업국전시대에서도 우리는 온 세상이 우러러따르는 절세의 위인들을 모신 크나큰 민족적긍지와 자부심을 가슴뿌듯이 느낄수 있었다.

경애하는 장군님을 우리 당의 최고수위에 변함없이 높이 모신 영광과 긍지를 안고 조선로동당의 령도따라 주체의 한길, 선군의 한길로 억세게 나아가려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드팀없는 신념과 의지는 3층에 전시되여있는 불멸의 꽃송이마다에도 그대로 어려있었다.

정녕 돌아보면 볼수록 절세의 위인들에 대한 다함없는 칭송과 열화같은 흠모의 마음이 아름다운 향기되여 흐르는 뜻깊은 전시회장이였다.

우리는 조선로동당창건 65돐경축 김일성화김정일화전시회장을 돌아보며 다시한번 확신할수 있었다.

이 땅에 만발한 불멸의 꽃바다와 더불어 위인흠모, 위인칭송의 력사는 영원할것이며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두리에 일심단결하여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의 향도따라 나아가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앞길에는 언제나 승리와 영광만이 있으리라는것을.

본사기자 리 남 호

태양의 위업 총대로 받들리

조선인민군 최대일소속부대전시대에서

선군의 총대로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하려는 인민군장병들의 억센 신념을 담은 글발 《태양의 위업 영원하리》가 아로새겨진 조선인민군 최대일소속부대전시대,

우리는 이곳에서 조선인민군 군관 리봉호동무를 만났다.

《저 글발에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를 우리 당과 혁명의 진두에 변함없이 높이 모시고 사회주의조국의 륭성번영과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선군의 총대로 억세게 담보해갈 우리 부대장병들의 절대불변의 신념과 의지가 그대로 어려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번 전시회를 준비하던 나날에 있었던 가지가지 일들을 더듬었다.

김일성화, 김정일화를 더 아름답게 피우기 위해 낮과 밤이 따로없이 애써온 온실관리원들에 대한 이야기, 지휘관과 병사들도 위인칭송의 꽃바다가 환희롭게 펼쳐질 10월을 기다려 태양의 꽃재배에 지성과 열정을 아낌없이 바쳐온 잊지 못할 나날들…

그 나날은 만발하는 태양의 꽃과 더불어 절세의 위인들에 대한 부대장병들의 열화같은 흠모와 그리움, 불변의 신념과 맹세가 함께 무성해지고 더욱 억척같이 다져진 나날이였다.

아름답게 피여난 불멸의 꽃들을 바라보며 우리는 가장 깨끗한 량심과 혁명적의리로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혁명령도를 충직하게 받들어가는 인민군장병들의 숭고한 정신세계를 다시금 안아보았으며 절세의 위인들의 손길아래 천하무적의 백두산혁명강군으로 자라난 조선인민군은 앞으로도 선군혁명의 한길에서 언제나 백승만을 떨쳐가리라는것을 더욱 확신하게 되였다.

본사기자

—인민보안부전시대에서— 본사기자 찍음

불타는 열정을 담아

성, 중앙기관들에서

조선로동당창건 65돐경축 김일성화김정일화전시회장에는 뜻깊은 10월을 높은 정치적열의와 빛나는 로력적성과로 맞이하기 위해 힘찬 투쟁을 벌리는 나날에 온 나라 인민모두가 심장으로 새겨안은 진리이기에 참관자들모두가 이 글발앞에서 그토록 가슴부풀며 오래도록 발걸음을 떼지 못하는것이 아니랴.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씨앗은 그 어디에 뿌리를 내리건 태양을 향하여 가지를 뻗고 꽃이 피는것이다.》

위대한 당의 령도따라 선군시대를 최첨단돌파로 빛내여가려는 우리의 과학자, 기술자들의 애국열정과 민족적자존심, 불굴의 투지가 그대로 어려오는 국가과학원전시대앞에서 사람들은 선뜻 걸음을 옮기지 못한다.

당창건기념탑모형을 중심으로 전시된 수백상의 크고 아름다운 김일성화와 김정일화, 《광명성1》호와 《광명성2》호의 모형, 수십가지의 색등이 조화롭게 변화되는 황홀한 불장식과 분수…

모든것이 훌륭하고 최상의 수준이지만 그가운데서도 특별히 눈길을 끄는것은 전시대의 웃부분에 새겨진 《조선은 결심하면 한다!》는 힘있는 글발이다.

당창건 65돐을 높은 정치적열의와 빛나는 로력적성과로 맞이하기 위해 힘찬 투쟁을 벌리는 나날에 온 나라 인민모두가 심장으로 새겨안은 진리이기에 참관자들모두가 이 글발앞에서 그토록 가슴부풀며 오래도록 발걸음을 떼지 못하는것이 아니랴.

인민생활향상에서 결정적인 전환을 가져오기 위한 일대 공세를 벌려 많은 성과를 이룩한 끝없는 긍지와 자부심이 비껴서인가 경공업성전시대의 수백상의 불멸의 꽃들도 하나같이 아름답다.

인민들을 위해서는 그 무엇도 아끼지 않는 우리 당의 숭고한 뜻을 영원히 높이 받들어나갈 경공업부문 일군들의 열정을 《장군님따라 천만리》의 힘있는 글발에 그대로 담은 경공업성전시대는 참관자들의 발걸음을 쉽게 놓아주지 않는다.

《우리 성에서는 위대한 우리 당에 드리고싶은 끝없는 감사의 인사를 이 불멸의 꽃들에 그대로 담았습니다.》

사진을 찍는 많은 참관자들로 흥성이는 수매량정성전시대앞에서 한 일군이 하는 말이였다. 그는 조선로동당창건 65돐경축 김일성화김정일화전시회를 더욱 황홀하게 장식하기 위해 성의 일군들과 정무원들이 바쳐온 열정에 대하여 이야기하였다.

불멸의 꽃재배에 아낌없는 사랑과 정성을 기울여온 가슴뜨거운 이야기들을 우리는 금속공업성과 원유공업성, 수산성을 비롯한 수많은 성, 중앙기관의 전시대들에서도 들을수 있었다.

전시회의 특성에 맞게 꽃으로 형상한 당마크를 배경으로 수백상의 김일성화와 김정일화가 전시된 외무성전시대에는 백일홍으로 장식한 이런 글발이 있다.

우리 당에 영광을!

우리는 사연을 묻지 않았다. 영광스러운 우리 당을 칭송하는 많은 표현들가운데서도 부디 이 글발을 골라 꽃으로 정히 새긴 그 마음이 어찌 외무성 일군들과 정무원들의 진정만이랴.

65성상 조국과 인민을 이끌며 오직 승리와 영광만을 떨쳐온 존엄높은 우리 당, 위대한 어머니당에 다함없는 감사의 큰절을 드리고 또 드리는 천만군민의 충정의 마음안고 태양의 꽃바다는 끝없이 설레이고있다.

본사기자 장 은 영

불멸의 꽃에 비낀 흠모의 마음

외국의 벗들이 출품한 태양의 꽃을 보고

불멸의 꽃 김일성화와 김정일화는 절세의 위인들을 그리며 따르는 만민의 마음속에 깊이 뿌리내리고 사시장철 활짝 피는 자주시대의 명화, 영원한 태양의 꽃이다. 우리는 그에 대하여 외교단사업국전시대, 대외문화련락위원회전시대를 통해서도 뜨겁게 느낄수 있었다.

외교단사업국전시대에는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호금도동지와 상봉하시는 사진이 정중히 모셔져있다.

뜻깊은 10월의 명절을 맞으며 평양에서 조선로동당창건 65돐경축 김일성화김정일화전시회가 진행된다는 소식에 접한 우리 나라 주재 중화인민공화국대사관에서는 전시회장에 두 나라 수뇌분들의 상봉사진과 함께 자기들의 진정이 담긴 10여상의 김일성화, 김정일화를 정중히 전시해줄것을 절절히 부탁하였다.

로씨야, 웰남, 브라질, 유럽동맹을 비롯한 여러 주조 외교 및 국제기구대표부들의 명의로 전시된 수많은 김일성화, 김정일화에도 절세의 위인들에 대한 다함없는 흠모의 정이 뜨겁게 비껴있었다.

몽골 김일성유치원, 뉴질랜드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협회, 에파도르 볼룬따드출판사, 아랍변호사동맹, 스위스조선위원회, 뛰르끼예조선친선협회, 항일혁명렬사 장울화동지의 유가족일동을 비롯하여 어버이수령님의 접견을 받은 인사들과 그 후손들, 백두산3대장군의 존함을 모신 세계 여러 나라의 단위들, 조선인민과의 친선 및 련대성단체들의 명의로 불멸의 꽃들이 전시된 대외문화련락위원회 전시대에서도 우리는 세월의 흐름과 더불어 더욱 뜨거워지는 세계 진보적인민들의 위인흠모의 열기를 한껏 느낄수 있었다.

돌아보면 볼수록 전시회장은 우리 당의 강화발전과 조국의 륭성번영, 세계자주화위업수행에 거대한 공적을 쌓아올리신 어버이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에 대한 다함없는 흠모의 정이 가슴가득 넘쳐나는 만민칭송의 꽃바다였다.

본사기자

크나큰 민족적긍지에 넘쳐

꽃으로 새긴 당마크

조국평화통일위원회전시대 앞에서였다. 활짝 핀 500여상의 김일성화, 김정일화로 당마크를 형상한 전시대를 보며 참관자들마다 감탄을 터치는데 그중에서도 한 사람은 남달리 흥분을 금치 못해하였다. 알고보니 그는 조국통일상수상자였다.

그는 평범한 근로대중을 혁명의 주체, 당의 골간으로 내세워주신 위대한 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은 근로인민을 위하여 하늘이 낸 위인중의 위인들이시라고, 때문에 남녘인민들을 비롯한 온 겨레는 절세의 위인들께서 펼쳐가시는 조선로동당의 정치를 열렬히 지지하고 칭송하고있다고 절절하게 말하는것이였다. 그러자 주위사람들도 절세의 위인들께서 계시여 우리 당이 빛나고 당의 정치가 만방에 위력을 떨치고있는것이라고 목소리를 합치였다.

그들은 위인칭송의 꽃으로 새긴 당마크앞에서 한덩어리가 되여 사진을 찍었다.

그 모습은 우리의 마음속에 또 하나의 화폭을 펼쳐주었다. 마치와 낫과 붓이 빛나는 우리 당기발아래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가 함께 모여 밝게 웃는 모습을.

본사기자

해외공민의 부탁

총련중앙상임위원회전시대의 중심에는 위대한 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영상이 밝게 빛나고있다. 수십만 재일동포들의 뜨거운 정성과 념원이 뿌리가 되여 활짝 피여난 수백상의 김일성화와 김정일화들이 절세의 위인들의 영상을 옹위하고있는 전시대를 가리키며 동포해설강사는 이렇게 말하였다.

《이역만리에서도 불멸의 꽃은 변함없이 피고있습니다. 우리 당의 창건자이신 위대한 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에 대한 동포들의 흠모의 정은 날이 갈수록 더욱 뜨거워지고있습니다. 그 진정을 안고 우리가 왔습니다.》

몸은 비록 이역땅에 있어도 마음만은 강성대국건설로 들끓는 조국땅에 두고 걸음걸음 애국의 한길을 걷고있는 동포들에 대한 이야기도 들려주고난 강사는 바다를 건너 안고온 소중한 부탁이 있다고 하는것이였다.

《제가 떠나올 때 총련의 일군들과 동포들은 조국인민들에게 꼭 전해달라고 한결같이 부탁했습니다. 자기들의 마음까지 합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잘 모셔달라고 그리고 우리 당을 대를 이어 높이 받들어달라고 말입니다.》

전체 조선민족의 소원인 그 절절한 당부를 길이 전하며 오늘도 전시회장에는 이역만리에서 온 불멸의 꽃들이 아름답게 피고있다.

본사기자 허 명 숙

각지에 있는 렬사들의 동상과 인민군렬사탑, 렬사릉, 렬사묘들에 화환진정

조선로동당창건 65돐에 즈음하여 각지에 있는 렬사들의 동상과 인민군렬사탑, 렬사릉, 렬사묘들에 10일 화환들이 진정되였다.

화환진정들에는 지방당, 정권기관, 근로단체일군들, 근로자들, 청소년학생들이 참가하였다.

화환진정곡이 울리는 가운데 혜산혁명렬사릉과 각지의 렬사들의 동상, 인민군렬사탑, 렬사릉, 렬사묘들에 지방당, 정권기관, 근로단체, 공장, 기업소, 농장, 학교 등의 명의로 된 화환들이 진정되였다.

참가자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사상과 령도에 무한히 충직하였으며 조국의 자주독립과 인민의 자유와 행복, 주체의 당건설위업과 나라의 부강번영, 조국통일을 위한 성스러운 투쟁에서 고귀한 삶을 빛내인 렬사들을 추모하여 묵상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김기남동지 주체사상국제연구소 리사장과 사무국장, 주체사상연구조직대표단 단장들을 만났다

【평양 10월 11일발 조선중앙통신】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인 김기남동지는 11일 조선로동당창건 65돐경축행사에 참가한 국제김일성상리사회 서기장인 비슈와나스 주체사상국제연구소 리사장, 오가미 겡이찌 주체사상국제연구소 사무국장, 여러 나라와 지역의 주체사상연구조직대표단 단장들을 만나 따뜻한 분위기속에서 담화를 하였다.

여기에는 지승철 조선사회과학자협회 위원장, 판계부문 일군들이 참가하였다.

석상에서 주체사상국제연구소 리사장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총비서로 변함없이 높이 추대되신것은 자기들에게 있어서 크나큰 기쁨으로 된다고 강조하였다.

그는 조선로동당이 불패의 위력을 과시할수 있은것은 위대한 수령들을 혁명의 진두에 모시였기때문이라고 말하였다.

주체사상을 따라배우려는것은 자주성을 지향하는 세계 진보적인민들의 념원이라고 하면서 그는 주체사상연구보급활동을 더욱 적극적으로 벌려나갈 의지를 표명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김영일동지 일본 이노끼게놈련합주식회사 회장일행을 만났다

【평양 10월 11일발 조선중앙통신】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후보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인 김영일동지는 11일 조선로동당창건 65돐 경축행사에 참가한 이노끼 간지 일본 이노끼게놈련합주식회사 회장일행을 만나 담화를 하였다.

여기에는 박근팡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과 판계부문 일군들이 참가하였다.

평양기계대학과 에파도르 《루이스 바르가스 또레스》 에스메랄다스 기술종합대학사이의 친선 및 과학교류, 협조에 관한 합의서 조인

【평양 10월 11일발 조선중앙통신】평양기계대학과 에파도르 《루이스 바르가스 또레스》 에스메랄다스기술종합대학사이의 친선 및 과학교류, 협조에 관한 합의서가 11일 인민문화궁전에서 조인되였다.

조인식에는 방순철 평양기계대학 학장, 서호원 조선에파도르친선협회 위원장, 판계부문 일군들과 알폰쏘 무르게이띠오 에파도르 《루이스 바르가스 또레스》 에스메랄다스기술종합대학 부총장과 일행이 참가하였다.

방순철학장과 알폰쏘 무르게이띠오 부총장이 합의서에 수표하였다.

조선로동당창건 65돐경축 연회

중국주재 우리 나라 대사관에서 마련

조선로동당창건 65돐에 즈음하여 중국주재 우리 나라 대사관에서 8일 연회를 마련하였다.

연회에는 습근평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인 중화인민공화국 부주석, 왕가서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대외련락부장, 가정안 중국인민해방군 총정치부 부주임, 류결일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대외련락부 부부장, 장지군 외교부 부부장, 맹굉위 공안부 부부장, 왕지국 철도부 부부장, 진건 상무부 부부장, 조소화 문화부 부부장, 하승원 인민일보사 부사장, 주석생 신화통신사 부사장, 무동화 중조우호협회 회장과 관계부문 일군들이 초대되였다.

최병관 중국주재 우리 나라 특명전권대사와 대사관성원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연회에서는 연설들이 있었다.

우리 나라 특명전권대사는 조선로동당을 창건하시고 혁명과 건설을 승리와 영광의 한길로 이끌어오시였으며 우리 당을 백전백승의 강철의 당으로 강화발전시키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불멸의 업적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총비서로 변함없이 높이 추대되신것은 그이에 대한 전체 당원들과 인민들의 절대적인 지지와 신뢰의 표시이며 경애하는 장군님의 두리에 일심단결하여 선군혁명위업을 끌까지 완성해나가려는 천만군민의 신념과 의지의 과시로 된다고 그는 강조하였다.

그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올해에 두차례에 걸쳐 중국을 방문하시고 호금도주석과 중요한 합의들을 이룩하신데 대해 언급하고 로세대혁명가들께서 친히 마련하고 귀중한 유산으로 물려주신 조중친선은 오늘 두 나라 최고령도자들의 깊은 판심속에 새로운 높은 단계에 올라섰다고 말하였다.

전통적인 조중친선을 변함없이 공고발전시키는것은 조선로동당의 일관한 립장이라고 하면서 그는 중국동지들과 함께 두 당, 두 나라, 두 인민들사이의 친선협조관계를 대를 이어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할 의지를 표명하였다.

중화인민공화국 부주석은 호금도총서기와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를 대표하여 조선로동당창건 65돐과 당대표자회의 성과적인 진행을 열렬히 축하하고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께서 창건하신 조선로동당의 령도밑에 영웅적조선인민은 지난 65년동안 피어린 투쟁으로 온갖 난관을 극복하면서 인민정권을 건설하고 나라의 주권과 존엄을 수호하였으며 조선식사회주의를 건설하는 길에서 끊임없이 전진하며 기뻐할만한 성과를 거두었다.

김정일총비서의 령도밑에 조선로동당은 조선인민이 김일성주석의 유훈을 받들고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정신으로 일심단결하여 완강하게 투쟁해나가도록 함으로써 조선의 실정에 맞는 발전의 길을 모색하고 사회주의강성대국을 건설하는 과정에 커다란 성과를 이룩하였다.

그는 얼마전에 진행된 조선로동당대표자회는 조선로동당과 조선인민의 정치생활에서 하나의 대사변이며 새로운 정세하에서 당건설을 강화하고 나라의 발전을 촉진하는데서 중대하고 심원한 의의를 가진다고 하면서 김정일총비서를 수반으로 하는 조선로동당의 령도밑에 조선인민이 경제를 발전시키고 인민생활을 향상시키며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실현하고 대외관계를 발전시키는 사업에서 끊임없이 새로운 성과를 거둘것이라고 강조하였다.

그는 지난 기간의 중조관계를 높이 평가하고 다음과 같이 계속하였다.

김정일총비서께서는 올해에 두차례에 걸쳐 중국을 방문하시여 호금도총서기와 중조관계와 공동의 관심사로 되는 문제들에 대해 폭넓고 깊이있는 의견을 교환하시고 중요한 합의를 이룩하심으로써 중조친선의 력사에 빛나는 한페지를 아로새기시였다.

중국은 조선로동당의 새 령도집단과 함께 전통계승, 미래지향, 선린우호, 협조강화의 정신에 따라 중조친선협조관계를 더욱 발전시킬것이다.

참가자들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건강을 축원하여, 존경하는 호금도동지의 건강을 축원하여,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창건 65돐을 경축하여, 조중친선의 끊임없는 공고발전을 위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부강번영을 위하여 잔을 들었다.

【베이징발 조선중앙통신】

주체사상연구조직대표단, 대표들과의 친선련환모임 진행

【평양 10월 11일발 조선중앙통신】주체사상연구조직대표단, 대표들과의 친선련환모임이 11일에 있었다.

모임에는 조선로동당창건 65돐 경축행사에 참가한 국제김일성상리사회 서기장인 비슈와나스 주체사상국제연구소 리사장과 여러 나라와 지역의 주체사상연구조직대표단, 대표들이 참가하였다.

조선사회과학자협회 성원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참가자들은 주체사상연구보급사업을 더욱 심화시킬데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다채로운 체육유희경기를 하면서 친선의 정을 두터이 하였다.

청진항에서 외국선박선원들의 집회 진행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총비서로 변함없이 높이 추대되신것과 당창건 65돐을 축하하는 외국선박선원들의 집회가 8일 청진항에서 진행되였다. 빠나마국적선박 《푸통》호, 《아오양씨왕》호, 캄보쟈국적선박 《진얀8》호 선장, 선원들이 집회에 참가하였다.

집회에서는 연설들이 있었다.

연설자들은 일찌기 당창건의 튼튼한 기초를 마련하신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 해방후 조선로동당을 창건하시고 인민대중속에 뿌리박은 혁명적당으로서의 역할을 다하도록 현명하게 이끄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그들은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사상과 위업을 빛나게 계승완성해나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조선로동당을 불패의 당으로 강화발전시키시였다고 강조하였다.

그들은 조선로동당대표자회에서 경애하는 김정일동지를 당의 최고수위에 높이 모신것은 그이에 대한 조선의 군대와 인민의 절대적인 지지와 신뢰심의 표시로 된다고 강조하였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 계시여 조선로동당은 제국주의자들의 압살책동을 짓부시고 사회주의전취물을 영예롭게 수호하며 통일위업을 반드시 성취할것이라고 그들은 말하였다.

연설자들은 조선로동당 총비서로 변함없이 높이 추대되신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 최대의 영광을 드리였으며 당창건 65돐을 맞는 조선인민을 열렬히 축하하였다.

【조선중앙통신】

북남공동선언의 기치밑에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 방안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 온 민족이 떨쳐나서자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제시 30돐에 즈음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비망록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력사적인 조선로동당 제6차대회에서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을 제시하신 때로부터 30돐이 되였다.

뜻깊은 이날에 즈음하여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조국과 민족을 위한 성스러운 위업에 한평생을 다 바치시고 조국통일의 휘황한 설계도를 펼쳐놓으신 절세의 애국자이시고 민족의 태양이시며 조국통일의 구성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삼가 숭고한 경의를 표하고있다.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제시 30돐에 즈음하여 위대한 수령님의 조국통일로업적과 련방제통일방안의 정당성과 생활력, 그 실현을 위한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의 적극적이며 시종일관한 노력을 내외에 널리 알리기 위해 이 비망록을 발표한다.

1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은 나라의 통일을 하루빨리 실현하려는 온 민족의 절절한 념원과 북과 남의 구체적현실을 정확히 반영한 가장 정당한 통일방안이다.

외세에 의한 민족분렬로 북과 남에 서로 다른 사상과 제도가 오래동안 존재한 우리 나라의 조건에서 어느 한쪽의 제도에 의한 통일을 실현하려고 한다면 대결과 분렬을 격화시키고 돌이킬수 없는 민족적 재난을 초래하게 될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1980년 10월 조선로동당 제6차대회에서 온 겨레의 지향과 나라의 구체적현실을 반영한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을 새롭게 제시하시였다.

하나의 민족, 하나의 국가, 두개 제도, 두개 정부에 기초한 련방제통일방안은 우리 나라의 실정에 맞는 가장 정당한 조국통일방도의 대원칙이다.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은 북과 남이 서로 상대방에 존재하는 사상과 제도를 그대로 인정하고 용납하는 기초우에서 북과 남이 동등하게 참가하는 민족통일정부를 내오고 그밑에서 북과 남이 같은 권한과 의무를 지니고 각각 지역자치제를 실시하는 련방공화국을 창립하여 조국을 통일하는것을 기본내용으로 하고있다.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은 통일국가의 전모와 그 실현방도를 밝혀준 설계도이다.

이 방안은 련방국가의 조직과 구성원칙, 권한분배와 임무, 통일국가의 성격과 국호, 그 대외적지위 등을 북과 남의 공통된 지향과 요구에 맞게 규정하고있다.

때문에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은 사상과 정견, 신앙이 어떠하건, 그가 북에 있건 남에 있건 관계없이 민족을 사랑하고 통일을 념원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공감하고 접수할수 있는 가장 현실적이고 합리적이며 공명정대한 통일방안으로 된다.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은 련방국가가 실행하여야 할 10대시정방침도 전민족적통일국가로서의 성격과 사명, 전체 조선민족의 리익과 요구에 맞게 규정하고있다.

련방국가의 10대시정방침은 조선민족의 한결같은 지향과 념원을 정확히 반영하여 통일조국이 나아갈 앞길을 환히 밝혀주는 애국애족적이며 평화애호적인 강령이다.

참으로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은 오랜 세월 분렬로 말미암아 시련과 곡절을 겪어온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희망의 표대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북과 남에 서로 다른 사상과 제도가 존재하고 각이한 계급, 계층과 정치세력의 리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우리 나라의 구체적현실에 부합되는 가장 합리적이며 현실적인 련방제통일방안을 제시하심으로써 조국통일을 빠르고 순조롭게 실현할수 있는 길이 활짝 열리게 되였다.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은 분렬된 첫날부터 시종일관 하나의 조선로선, 통일로선을 견지하시며 조국통일을 위해 모든것을 다 바쳐오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사색과 헌신으로 마련된 애국애족의 통일헌장이며 수령님께서 온 민족과 겨레에게 남기신 한없이 숭고한 통일유산이다.

북과 남이 단결과 합작으로 련방국가를 수립하여 나라의 통일을 이룩한다면 우리 나라는 반만년의 유구한 력사와 찬란한 민족문화, 막강한 국력을 가진 자주독립국가의 당당한 존엄과 권위를 가지고 세계무대에 등장할것이며 삼천리강토우에 더욱 부강하고 번영하는 인민의 락원을 건설하게 될것이다.

하기에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은 발표되자마자 해내외에서 온 겨레의 념원과 지향을 반영한 민족공동의 통일강령, 가장 공명정대하고 현실적인 통일강령으로 폭풍같은 지지와 열렬한 찬동을 불러일으켰다.

남조선의 각계층 인민들과 정계, 사회계인사들은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이 우리 나라의 현실적 조건에서 조국통일문제를 가장 빨리 해결할수 있는 최선의 방도라고 하면서 련방제통일을 주장하여나섰으며 지어 남조선당국자들도 련방제방식의 통일방안을 더이상 외면할수 없게 되였다.

세계 여러 나라의 당과 국가수반들, 정부와 정당, 단체들도 련방제통일방안에 전폭적인 공감을 표시하며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 지지위원회를 내오고 세계적판도에서 련방제통일을 지지성원하는 대회와 행사들을 련이어 개최하면서 련대성운동을 활발히 벌렸다.

정녕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하나의 조선로선, 통일로선을 일관하게 견지하시고 조국통일방도의 대원칙에 부합되는 통일조국수립의 정치헌장인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을 마련하시여 통일의 진로를 환히 밝혀주신 불멸의 업적은 우리 민족의 통일운동사와 더불어 길이 빛날것이다.

2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는 지난 30년간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을 실현하기 위해 성의있는 모든 노력을 다 기울여왔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을 위한 전제를 마련하는데 선차적인 관심을 돌리시고 여러 갈래의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통일분위기를 끊임없이 고조시켜나가도록 하시였다.

이에 따라 1980년 11월 11일에 진행된 공화국북반부 제정당, 사회단체련석회의에서는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의 조속한 실현을 위해 북과 남, 해외의 각당, 각파, 각계각층을 망라하는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준비위원회를 조직할데 대한 제안을 담은 편지를 남조선과 해외동포들에게 보냈다.

그리고 1981년 8월에 북과 남, 해외의 각계각층 대표들이 참가하는 민족통일촉진대회소집제안을 비롯하여 련방제통일방안을 실현하기 위한 폭넓은 협상방안들을 련이어 제시하였다.

그러나 남조선의 군사파쇼도당은 우리의 성의있는 조치를 한사코 외면하면서 우리가 편지를 보낸 대상자들을 공직에서 추방하고 각종 죄명을 씌워 체포, 박해하였으며 각계층 인민들의 통일론의를 무자비하게 탄압하였다.

이러한 정세속에서 1982년 2월 10일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조국통일을 위한 협상기구로서 북과 남, 해외의 정치인련합회의를 소집할것을 제의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북과 남, 해외의 정치인들로서 100인련합회의를 소집할데 대한 제안은 미제와 남조선군사파쇼도당의 악랄한 방해책동으로 인해 비록 성사되지 못하였으나 1982년 12월, 1984년 12월 핀란드와 오스트리아에서 조국통일을 위한 북과 해외의 동포, 그리스도교 신자간의 대화가 진행된것을 비롯하여 북과 남, 해외의 각계층 인사들의 통일대화를 발전시키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우리가 1980년대 후반기에 제시한 북남련석회의와 북남지도급 인사들의 정치협상회의소집제안도 련방제통일방안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과정에 마련된 폭넓은 협상방안이였다.

련방제통일에 대한 전민족적인 념원과 의지가 높아가는 가운데 1989년 3월말 남조선의 통일인사 문익환목사가 평양으로 찾아왔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토록 분망하신 속에서도 두차례에 걸쳐 그를 접견해주시고 조국통일과 관련한 허심탄회한 담화를 나누시였으며 나라의 통일을 련방제방식으로 이룩할데 대한 견해일치를 보시였다.

문익환목사의 평양방문은 우리의 일관한 전민족적대화와 협상제의의 정당성과 생활력에 대한 뚜렷한 과시로서 북과 남의 단합과 련대실현에 커다란 돌파구를 열어놓았다.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는 련방제통일실현의 대전제인 온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통한 대단결실현에도 커다란 관심을 돌려왔다.

민족의 화해와 단합의 새 국면을 마련하는데서 1980년대 중엽 큰물피해를 입은 남조선인민들에게 공화국북반부인민들의 뜨거운 동포애와 지성이 담긴 구호물자를 전달한것은 특기할 사변이였다.

민족의 어버이이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1984년 8월말—9월초에 내린 폭우로 남조선의 여러 지역에서 많은 인명피해와 리재민들이 발생했다는 보고를 받으시고 지체없이 구호물자를 보내도록 은정어린 조치를 취해주시였다.

구호물자의 전달과정은 피는 물보다 진하고 동포애는 사상과 정견보다 우위에 있으며 민족적화해와 단합은 그 어떤 힘으로도 막을수 없다는것을 실증해주었다.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는 구호물자전달을 계기로 북과 남사이의 폭넓은 대화와 협상, 다방면적인 합작과 교류를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우리의 주동적인 발기와 진지한 노력에 의하여 1970년대에 모처럼 마련되였다가 중단되였던 북남적십자회담이 다시 열리게 되였고 그 결과 조국해방 40돐을 계기로 분렬사상 처음으로 북과 남사이에 예술단과 흩어진 가족, 친척들의 고향방문단교환사업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미제와 남조선괴뢰들은 1980년대 중반기부터 대규모적인 북침핵전쟁연습인 《팀 스피리트》 합동군사연습에 더욱 광분함으로써 북과 남사이의 화해움직임을 차단하고 평화통일의 앞길에 엄중한 난관을 조성하였다.

이러한 정세속에서도 련방제통일실현의 평화적환경과 조건을 마련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은 줄기차게 이어졌다.

북과 남사이의 불가침에 관한 문제를 토의하기 위한 북남국회회담도 제의하고 1986년 6월과 1987년 1월에는 군사당국자회담과 북남고위급정치군사회담을 열데 대한 편지도 남조선당국에 보냈으며 1988년 11월에는 민족공동의 평화강령으로서 평화보장4원칙과 포괄적인 평화방안도 제시하였다.

또한 미국과 남조선당국에 3자회담을 진행할것을 제안하고 그 실현을 위해 모든 성의를 다하였다.

그러나 남조선당국은 우리의 모든 제안과 방안들을 회피하고 거부하다 못해 이른바 《자유민주주의체제하의 통일》을 떠벌이며 대화와 평화통일을 전면부정해나섰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1980년대말—1990년대초 조성된 엄중한 정세에 대처하여 1990년 5월 조국통일5개방침을 제시하신데 이어 1991년 년년사에서 련방제통일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방안을 새롭게 천명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우리는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이 민족적합의의 기초로 될수 있는 공명정대한 민족공동의 통일방안으로 된다고 믿고있지만 그에 대한 민족적합의를 보다 쉽게 이루기 위하여 잠정적으로는 련방공화국의 지역자치정부에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하며 장차로는 중앙정부의 기능을 더욱 더 높여나가는 방향에서 련방제통일을 점차적으로 완성하는 문제도 협의할 용의가 있다는데 대해 명백히 밝히시였다.

여기에는 북과 남의 서로 다른 제도를 하나의 제도로 만드는 문제는 앞으로 천천히 순탄하게 풀어나가도록 후대들에게 맡겨도 되지만 사상과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하나의 민족으로서 하나의 통일국가를 세우는 일만은 더는 미룰수 없다는 심오한 뜻이 깃들어있다.

애국애족의 리념으로 일관된 획기적인 방안에 고무된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조국통일에 대한 새로운 락관과 신심을 가지고 거족적인 통일운동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섰다.

그 결과 1990년대에 들어와 전민족적대화의 장이 열리고 조국통일범민족련합이 결성된데 이어 북남고위급회담이 개최되는 등 련방제방식의 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유리한 환경이 마련되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1993년 4월에 발표하신 불후의 고전적로작 《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에서 북과 남이 현존하는 두 제도, 두 정부를 그대로 두고 각당, 각파, 각계각층의 모든 민족성원들을 대표할수 있는 범민족통일국가를 창립할데 대하여 다시금 뚜렷이 천명하시였다.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은 전민족의 대단결로 자주적이고 평화적이며 중립적인 련방제방식의 통일국가를 하루빨리 창설할수 있는 근본담보를 마련한 불멸의 민족대단결총서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해내외에서 거족적으로 전개된 련방제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줄기찬 투쟁으로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의 앞길에는 밝은 서광이 비쳐지게 되였다.

3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개척하시고 이끌어오신 조국통일위업을 계승하여 련방제방식의 통일을 앞당겨 실현하는것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철석같은 의지이며 신념이다.

1996년 11월 24일 대결과 분렬의 상징인 판문점을 찾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어버이수령님의 조국통일유훈을 필생의 사명으로 여기고 끌까지 관철할 철의 의지를 내외에 엄숙히 천명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1997년 8월 4일에 발표하신 불후의 고전적로작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조국통일유훈을 철저히 관철하자》에서 어버이수령님께서 내놓으신 조국통일의 근본원칙과 방도들을 전일적으로 체계화하고 집대성하여 조국통일3대헌장으로 정립하시였다.

조국통일3대원칙과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을 기본내용으로 하는 조국통일3대헌장이 제시됨으로써 우리 인민과 온 겨레는 명백한 목표와 방향을 가지고 거족적인 통일대진군을 더욱 힘있게 다그쳐나갈수 있게 되였다.

1997년 8월 평양에서 열린 조국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제8차 범민족대회는 조국통일3대헌장의 기치밑에 련방제통일을 하루빨리 실현하려는 북과 남, 해외 온 겨레의 확고부동한 의지를 내외에 뚜렷이 과시하였다.

1998년 2월 공화국정당, 단체련합회의에서는 남조선에 새 《정부》가 들어선 조건에서 북과 남이 단합하여 자주적으로 민족의 출로를 함께 열어나가자는 내용의 편지를 남조선의 정당, 단체들에 보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1998년 4월 18일에 발표하신 불후의 고전적로작 《온 민족이 대단결하여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이룩하자》에서 민족대단결5대방침을 제시하시여 련방제통일의 기본담보인 민족대단결의 실천적방도를 구체적으로 밝혀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열어주신 민족대단결의 넓은 길을 따라 남조선의 통일애국인사인 문익환목사의 부인 박용길녀사와 전 현대그룹 명예회장 정주영일행을 비롯한 화해와 협력의 개척자, 선구자들이 평양길에 오른데 이어 로동자, 농민, 청년학생, 종교인, 정치인, 언론인 등 수많은 각계층 인사들이 공화국 북반부를 방문하였다.

특히 1999년에 진행된 제10차 범민족대회는 북과 남, 해외의 3자련대실현으로 극소수의 분렬매국세력을 고립시키고 광범한 통일애국세력의 절대적우위를 확고히 이룩하였다.

변화발전하는 현실의 요구와 민족사의 추이를 깊이 통찰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조국통일의 새로운 국면을 열어놓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확고한 통일의지와 대용단에 의하여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제시 20돐이 되는 뜻깊은 해인 2000년에 온 겨레와 세인의 기대와 관심속에 민족분렬 55년만에 처음으로 력사적인 북남수뇌상봉과 최고위급회담이 진행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2000년 6월 15일 남조선의 김대중 전 대통령과 상봉을 진행하시고 조국통일의 리정표인 6.15공동선언을 채택하시였다.

6.15공동선언에서는 북과 남이 나라의 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나갈데 대해서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북측의 낮은 단계의 련방제안과 남측의 련합제안의 공통성을 인정하고 앞으로 그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나가기로 합의하였다.

민족의 운명과 조국통일위업수행에서 특출한 자리를 차지하는 6.15공동선언은 북남수뇌분들이 직접 합의하고 서명발표한 최고의 권위를 가진 민족공동의 지도적 지침이며 통일의 대강이다.

6.15공동선언이 발표됨으로써 북과 남이 련방제통일에로 지향해나갈수 있는 민족공동의 기초가 마련되게 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민족분렬 55년력사에서 이루지 못하였던 이 민족사적과제를 55시간의 평양상봉을 통하여 이룩하시여 조국통일의 전환적국면을 열어놓으신것은 시대와 민족앞에 쌓으신 또 하나의 영원불멸할 공적이다.

6.15북남공동선언발표후 지난 10년간은 전민족적범위에서 자주가 친미사대를 누르고 련북통일력량이 반공화국대결세력을 압도하며 북남관계를 불신과 대결로부터 화해와 협력, 통일로 전환시킨 자랑찬 승리의 나날이였다.

비상히 높아가는 민족의 자주통일열망속에서 2007년 10월 평양에서 북남수뇌상봉이 또다시 진행되고 《북남관계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이 채택되였다.

10.4선언은 6.15시대의 실천을 통해 그 정당성과 생활력이 검증된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에 대한 절대적인정과 확인으로부터 출발하고있는 실천강령이다.

10.4선언에서는 6.15공동선언의 기본정신과 그에 관통하고있는 기본내용인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을 선언의 첫 조항에 뚜렷이 명기함으로써 조국통일의 앞길을 더욱 환히 밝혀주었다.

북과 남이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기치를 높이 들고 서로 힘을 합쳐나간다면 북남관계발전과 조선반도의 평화보장, 련방제통일실현의 길이 열리지만 그렇지 못하면 대결과 전쟁밖에 초래될것이 없다는것이 지난 10년간의 력사적총화이다.

오늘 북남선언들을 고수하고 련방제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은 그것을 부정하고 차단하기 위해 날뛰는 반통일무리들과의 치렬한 투쟁을 동반하고있다.

친미사대와 동족대결로 6.15통일시대의 전진을 가로막아나선 남조선의 현 괴뢰보수패당은 반민족적이며 반통일적인 《실용주의》와 《비핵, 개방, 3000》따위의 각종 대결론을 들고 북남공동선언리행과 련방제통일실현을 필사적으로 반대해나서고있다.

남조선의 보수패당은 이전 《정권》들이 북과 합의한것을 리행할 의무가 없다고 생떼를 쓰는가 하면 북과 남이 련방제방식으로 통일을 실현할데 대해 합의한것은 《북의 대남전략에 말려든것》이라느니, 《6.15식통일은 절대로 안된다.》느니 뭐니 하며 로골적으로 부정해나서고있다.

북과 남이 공동으로 합의하고 내외에 선포한 7.4공동성명과 6.15공동선언, 10.4선언은 온 겨레가 통일의 그날까지 높이 들고나가야 할 기치로서 겨레의 념원과 지향에 역행하는 친미사대매국집단이 부정한다고 하여 그 민족사적의의가 훼손될수 없다.

지금 남조선괴뢰보수패당은 미국과 함께 모략적인 합선침몰사건을 우리와 련계시켜 해상과 지상, 공중에서 각종 규모의 전쟁연습을 광란적으로 벌리는 한편 그 무슨 《3단계통일방안》과 《통일세》를 운운하며 체제대결을 공공연히 고취해나서고있다.

민족의 운명과 전도에 대한 초보적인 일가견조차 없는 현 보수패당이 그 누구의 《급변사태》를 운운하며 체제대결과 전쟁책동에 광분할수록 나라의 통일은 료원해지고 민족의 운명은 극히 위태로운 지경에 빠지지 않을수 없다.

현실은 외세를 등에 업고 동족대결과 전쟁을 추구하는 현 보수패당을 그대로 두고서는 북남공동선언의 리행도, 나라의 평화와 통일도 기대할수 없다는것을 웅변적으로 보여주고있다.

북과 남, 해외의 온 민족은 남조선보수패당의 집권으로 인해 초래된 엄중한 현실을 통하여 련방제방식의 통일만이 민족을 전쟁의 위험에서 구원하고 나라의 통일위업을 순조롭게 성취하는 정당하고 유일한 길이라는것을 똑똑히 깨닫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에 과감히 떨쳐나서야 한다.

오늘 자주통일위업의 앞길에는 일시적인 난관이 가로놓여있지만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이 민족공동의 통일방도로 온 민족의 가슴속에 굳게 아로새겨져있고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이 그 실현을 위한 리정표를 환히 밝혀주고있는 한 우리 민족의 통일전도는 양양하다.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력사적인 북남공동선언의 기치를 높이 들고 련방제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섬으로써 이 땅우에, 이 하늘아래 부강번영하는 통일강성대국, 고려민주련방공화국을 기어이 일떠세워야 할것이다.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 만세!

력사적인 북남공동선언 만세!

주체99(2010)년 10월 8일
평 양

오스트리아로조련맹 좌익뿔럭 련방비서
만경대 방문, 당창건사적관 참관

올리베르 요니스카이트 오스트리아로조련맹 좌익뿔럭 련방비서가 만경대를 방문하였다.

오스트리아로조련맹 좌익뿔럭 련방비서 당창건사적관 참관

그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추녀낮은 초가집에서 탄생하시여 어린시절 나라찾을 큰뜻을 키우시고 일찌기 혁명의 길에 나서신데 대하여서와 애국적이며 혁명적인 만경대일가분들에 대한 해설을 들으면서 사적물들을 주의깊게 돌아보았다.

만경대옛집방문을 기념하여 그는 사진을 찍었다.

당창건사적관을 참관한 련방비서는 해방직후 광범한 대중속에 뿌리박은 혁명적이며 대중적인 당, 조선로동당을 창건하시고 강화발전시키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대한 흠모심을 금치 못해하였다.

이밖에 그는 평양시내 여러 곳을 참관하였다.

주조 무관단
조선로동당창건 65돐경축 김일성화김정일화전시회장 참관

조선로동당창건 65돐에 즈음하여 주조 무관단이 10일 조선로동당창건 65돐경축 김일성화김정일화전시회장을 참관하였다.

무관단성원들은 절세위인들의 현명한 령도밑에 65성상 인민대중의 자주위업을 승리의 한길로 이끌어온 조선로동당에 대한 우리 군대와 인민, 세계 진보적인민들의 다함없는 흠모심과 뜨거운 지성에 떠받들려 피여난 김일성화, 김정일화들로 황홀경을 이룬 전시회장을 깊은 감동속에 돌아보았다.

참관을 마치고 그들은 감상록에 글을 남기였다.

무관단을 대표하여 알렉쎄이 바르뚜쏘브 로씨야련방대사관 무관은 전시회장은 조선로동당의 두리에 굳게 뭉친 조선의 군대와 인민의 일심단결,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에서 위훈을 창조하려는 의지를 보여주고있다고 썼다.

그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군대와 인민이 나라의 안전을 수호하기 위한 투쟁에서 보다 큰 성과를 거두기 바란다고 썼다.

【조선중앙통신】

에짜도르 《루이스 바르가스 또레스》 에스메랄다스기술종합대학 부총장일행
만경대 방문, 여러곳 참관

조선로동당창건 65돐 경축행사에 참가하고있는 알폰쏘 무르게이띠오 에짜도르 《루이스 바르가스 또레스》 에스메랄다스기술종합대학 부총장과 일행이 만경대를 방문하였다.

만경대고향집을 찾은 손님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영광스러운 혁명력사와 만경대일가분들에 대한 해설을 들으면서 사적물들을 주의깊게 돌아보았다.

그들은 만경대옛집방문을 기념하여 사진을 찍었다.

단장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만경대고향집방문을 통하여 김일성주석각하에 대한 조선인민의 흠모심이 강렬하다는것을 잘 알게 되였다.

혁명적인 가정에서 탄생하신 김일성주석각하는 인민의 수령이시다. 그이께서는 조선혁명과 세계자주화위업수행에 커다란 공헌을 하시였다.

부총장과 일행은 또한 인민대학습당, 대동강과수종합농장 등을 참관하였으며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아리랑》을 관람하였다.

스위스단체들 련방제통일방안을 지지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제시 30돐과 10.4선언발표 3돐에 즈음하여 스위스조선위원회와 스위스주체사상연구소조가 9월 27일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은 지금으로부터 30년전인 1980년 10월 10일 김일성주석께서는 조선로동당 제6차대회에서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을 제시하시였다고 하면서 련방제방안의 구체적내용에 대해 밝히고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은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공명정대하고 현실적인 방안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남조선주둔 미군을 철수시켜야 하며 남조선당국은 련방제방안에 제시된 자주, 중립, 뿔럭불가담원칙을 인정하여야 한다. 10.4선언은 김정일총비서각하와 로무현 전 남조선대통령사이에 진행된 수뇌상봉의 결과이다.

10.4선언은 2000년 6월에 있은 북남수뇌상봉에서 채택된 력사적인 6.15공동선언에 기초하고있다.

남조선의 친미보수세력인 리명박일당에 의해 북남사이의 협력과 긴장완화의 관계가 완전히 파괴되였지만 우리 민족끼리의 기치아래 나라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조선인민의 투쟁은 멈춰세울수 없다.

【조선중앙통신】

조선통일지지 일본 나가노대표단 성원들 격정 토로
조선인민의 신념과 의지를 과시

【평양 10월 11일발 조선중앙통신】 우리 나라를 방문하고있는 조선통일지지 일본 나가노대표단 성원들이 11일 조선중앙통신사 기자와 회견하였다.

단장 스기모또 후미오와 대표단성원들은 조선로동당창건 65돐 경축행사에 참가하고 받은 인상에 대하여 격정을 토로하였다.

대표단단장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존경하는 김정일령도자께서 조선로동당 총비서로 변함없이 높이 추대되신것을 열렬히 축하한다.

지난 65년간 조선인민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과 존경하는 김정일총비서의 두리에 일심단결하여 사회주의건설을 힘차게 다그쳐왔다.

조선인민은 선군의 기치따라 사회주의조국을 수호하고 강성대국의 대문을 열어제끼기 위한 투쟁에서 커다란 전진을 이룩하고있다.

방문기간 우리는 조선인민이 여러 분야에서 이룩한 성과들을 목격하고 깊은 감동을 받았다. 김일성종합대학 전자도서관과 수영관, 대동강과수종합농장 등을 참관하면서 우리는 김정일총비서의 령도밑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여러 분야에서 거둔 성과에 대하여 잘 알수 있었다.

위대한 김정일령도자를 조선로동당 총비서로 높이 모신 크나큰 긍지와 영광을 안고 조선인민은 당창건기념일을 뜻깊게 경축하였다.

경축행사들이 특색있게 진행되였다.

조선로동당창건 65돐경축 열병식과 대경축야회,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아리랑》 등을 본 심정을 어떻게 표현하였으면 좋을지 모르겠다.

경축행사들은 경애하는 김정일령도자를 총비서로 높이 모신 조선로동당의 령도따라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위업을 성취하려는 조선의 군대와 인민의 신념과 의지를 만천하에 과시하였다.

위대한 김정일총비서의 선군정치를 받들고 조선인민이 경애하는 김일성주석의 탄생 100돐이 되는 2012년에 강성대국의 대문을 열어제끼리라고 확신한다.

김정일총비서의 령도따라 나아가는 조선인민의 앞길에는 승리와 영광만이 있을것이다.

우리는 앞으로도 일조 두 나라사이의 관계개선을 위한 활동을 적극 벌려나갈것이다. 일본정부가 일조평양선언에 기초한 두 나라사이의 관계를 개선하는데 적극 나서기 바란다.

김정일총비서께서 공화국의 부강번영과 강성대국건설위업실현을 위하여 건강하시기를 삼가 축원한다.

조선로동당은 진보적인류의 유일한 희망의 등대

조선에 관한 유럽지역토론회 단마르크에서 진행

2면에서 계속

걸음걸음 난관을 헤쳐야 하는 어려운 조건에서도 조선인민이 위대한 승리를 이룩할수 있은것은 주체적인 자주로선과 투쟁방도를 밝혀준 조선로동당의 정확한 령도가 있었기때문이다.

조선로동당의 옳바른 령도로 하여 조선인민은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 존엄있고 긍지높은 영웅적인민으로 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조선로동당의 령도밑에 세기적 변혁을 창조하면서 자주, 자립, 자위의 강위력한 사회주의나라로 전변되였다.

지난 세기말 김일성주석의 뜻밖의 서거와 동유럽사회주의 나라들의 붕괴, 련이은 자연재해, 제국주의련합세력의 압살공세로 조선은 최악의 시련과 난관을 겪지 않으면 안되였다.

바로 이러한 때 김정일령도자께서는 혁명군대에 의거하여 조선식사회주의를 지키고 혁명과 건설을 전진시켜나갈수 있게 하는 선군정치를 사회주의기본정치방식으로 확립하시였다.

이것은 당이 변화되는 정세와 시대의 요구에 맞게 인민대중의 혁명위업을 어떻게 이끌어나가야 하는가를 보여준 훌륭한 귀감이다.

조선로동당이 선군의 기치를 더욱 높이 추켜들었기에 조선인민은 최악의 역경을 이겨내고 제국주의련합세력과의 대결에서 승리만을 이룩하였으며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의 새시대를 펼쳐놓았다.

오랜 기간의 경험을 통하여 조선인민은 조선로동당의 령도가 있으면 미래는 창창하며 그 어떤 대적도 무서울것이 없다는것을 절감하였다.

조선로동당의 65년력사는 인민대중을 강력한 혁명의 주체로 키우고 그들을 동원하여 세기적변혁과 기적을 창조하여온 긍지높은 력사이다.

김일성주석께서 시원을 열어놓으시고 승리에로 이끌어오신 주체의 당건설위업은 김정일총비서각하에 의하여 빛나게 계승되고있다.

김정일총비서각하는 근 반세기에 걸쳐 조선로동당을 이끄시면서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한 굳건한 토대를 마련하신 위대한 령도자이시다.

조선인민은 조선로동당을 영광스러운 김일성주석의 당으로 끊임없이 강화발전시켜나가시는 김정일총비서각하의 로숙하고 세련된 령도밑에 앞으로도 반드시 새로운 승리를 이룩하고 강성대국의 빛나는 미래를 안아올것이다.

이어 《조선로동당은 위대한 김일성, 김정일동지의 당》, 《조선로동당은 조선인민의 전투적선봉대》, 《조선로동당의 력사적뿌리》, 《조선로동당의 인덕정치》, 《혁명과 건설의 향도자 조선로동당》, 《조선로동당의 불패의 힘의 원천—선군정치》, 《조선로동당의 선군령도는 백전백승의 기치》, 《나라의 통일을 위한 조선로동당의 투쟁》, 《사회주의위업의 향도자 조선로동당》이라는 제목으로 여러 인사들이 토론하였다.

프랑스조선친선협회 대표위원장은 김일성주석의 탄생 100돐이 되는 2012년에 기어이 사회주의강성대국의 대문을 열어제끼려는 조선로동당과 조선인민의 의지는 참으로 놀라운 기적을 안아오고있다고 하면서 이 모든 성과는 김정일각하의 탁월하고도 세련된 령도를 떠나 생각할수 없다, 김정일각하에 의하여 오늘 조선로동당은 혁명적당으로 그 위용을 만방에 떨치고있다고 말하였다.

조선과의 친선을 위한 영국협회 부위원장은 《ㄷ, ㄷ》는 조선로동당의 력사적뿌리라고 하면서 그 뿌리가 있었기에 조선로동당은 자주성을 확고히 견지하고 사회주의의 길, 주체의 한길을 꿋꿋이 걸어올수 있었다, 조선로동당의 위력과 불패성은 당의 자랑스러운 혁명전통에 확고히 기초하고있다, 위대한 김정일령도자께서 이끄시는 조선로동당은 조선인민을 보다 큰 승리와 영광에로 향도할것이다고 확언하였다.

핀란드조선협회 위원장은 조선에서는 인민들이 주체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하고 당의 위업수행에 떨쳐나서고있다고 하면서 김일성주석께서는 인민대중의 요구를 반영하여 조선로동당을 사상적으로 투철하고 의식화된 혁명조직으로 만드시였다, 조선로동당은 전위투사들을 핵심으로 하여 로동자, 농민, 지식인들을 성원으로 받아들이고 로동계급의 혁명적립장을 철저히 견지하면서 모든 활동을 광범한 근로대중의 리익과 의사에 맞게 벌리고있다, 조선로동당은 독특한 혁명적당으로서 세계 진보적인민들의 찬양을 받고있다고 격찬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의 친선 및 문화협조 로씨야협회 위원장은 김정일동지께서 이끄시는 조선로동당은 조선혁명의 참모부로서 국가 및 사회생활의 모든 령역에서 지도적, 향도적 력량으로 되고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해방후 조선인민이 걸어온 65년의 로정은 5천년에 달하는 조선의 전력사적과정에 있어본적이 없는 거대한 변혁들로 수놓아진 나날이다.

조선인민은 이 기간 조선로동당의 령도밑에 나라의 자주권과 존엄을 빛나게 수호하였으며 조선의 통일과 평화를 위한 국제련락위원회 서기장은 조선로동당은 창건된 첫날부터 나라의 통일을 위한 투쟁을 주도해왔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2000년 6월 평양에서 조선분렬사상 처음으로 북남수뇌상봉이 마련되고 6.15공동선언이 채택된것은 조선통일위업수행에서 전환적계기로 되는 중요한 사변이다.

조선민족끼리 힘을 합쳐 통일의 문을 열어나가는것을 기본정신으로 하는 북남공동선언은 조국통일3대원칙에 기초한 민족자주선언, 평화통일선언이며 조선통일의 리정표이다.

미국과 남조선당국의 반통일적이며 반민족적인 책동을 짓부시고 나라의 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조선로동당과 조선인민의 투쟁은 그 무엇으로써도 가로막을수 없다.

우크라이나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협회 위원장은 조선로동당은 김정일각하께서 펼치시는 선군정치를 받들어 전체 조선인민을 사회주의수호전에로 불러일으키고있다, 참으로 조선로동당이 걸어온 승리와 영광의 65성상은 당과 군대와 인민을 곧바른 한길로 이끌어오신 김일성주석과 김정일각하의 선군령도를 떠나 생각할수 없다고 격찬하였다.

스위스조선위원회 위원장은 세계 진보적인민들은 영광스러운 김일성, 김정일동지의 당인 조선로동당의 령도밑에 조선인민이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에서 빛나는 성과를 이룩하리라는것을 확신하고있다고 강조하였다.

토론회에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올리는 편지가 참가자들의 열광적인 박수속에 채택되였다.

【조선중앙통신】

사회주의위업의 향도자

련합토론회 진행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총비서로 변함없이 높이 추대되신것과 조선로동당 창건 65돐에 즈음하여 《사회주의위업의 향도자 조선로동당》이라는 주제의 련합토론회가 9월 30일 메히꼬 김일성주의연구실에서 진행되였다.

토론회장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들, 선군조선을 소개하는 출판물들이 전시되여있었다.

주체사상연구 메히꼬전국조정위원회, 메히꼬 김일성주의연구위원회, 주체사상연구소와 산하연구조직들의 인사들과 군중이 토론회에 참가하였다.

토론회에서는 주체사상연구 메히꼬전국조정위원회 위원장인 김일성주의연구위원회 위원장 라몬 히메네스 로뻬스가 연설하였다. 그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총비서로 변함없이 높이 추대되신것은 그이에 대한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 인민들의 절대적인 지지와 신뢰의 뚜렷한 발현이다.

그것은 또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개척하신 주체혁명위업, 선군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해나가려는 조선인민의 절대불변의 신념과 의지를 과시하는 일대 정치적사변으로 된다.

김정일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총비서로 변함없이 높이 추대되시였다는 소식은 세계진보적인민들과 주체사상 신봉자들에게 커다란 신심과 고무를 안겨준다.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선군혁명령도를 받는 조선로동당은 가장 권위있고 존엄높은 당으로서 세계사회주의운동을 주도해나가고있다.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모든 승리의 조직자이며 향도자인 조선로동당의 최고수위에 높이 모신 조선인민은 기어이 강성대국을 건설할것이다.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선군령도밑에 주체혁명위업, 사회주의위업이 반드시 승리하리라고 확신한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 가장 열렬한 축하와 최대의 경의를 드린다.

이어 토론들이 있었다.

토론자들은 절세위인들의 불멸의 당건설업적과 우리 당의 위력의 불패성에 대하여 깊이있게 해설론증하고 주체사상, 선군사상연구보급활동을 보다 활발히 벌려 위대한 수령님의 탄생 100돐을 성대히 기념하는데 기여할 결의들을 표명하였다.

담화발표

조선로동당창건 65돐에 즈음하여 노르웨이조선친선협회 위원장 토르스테인 엥겔스존이 4일 담화를 발표하였다.

그는 담화에서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올해 10월 10일은 조선로동당이 창건된 때로부터 65돐이 되는 뜻깊은 날이다.

조선로동당은 창건된 첫날부터 근로인민의 대중적당으로서의 자기의 사명과 임무를 훌륭히 수행하여왔다.

조선인민은 조선로동당의 령도밑에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보람찬 삶을 누려왔으며 당의 귀중함을 뼈저리게 체험하였다.

조선인민은 1990년대에 미국을 우두머리로 하는 제국주의련합세력의 극단적인 정치군사적압력과 경제제재, 련이어 들이닥친 자연재해로 하여 형언할수 없는 난관이 가로막았지만 조선로동당의 령도밑에 나라의 자주권과 사회주의를 굳건히 지켜냈으며 2012년에 사회주의강성대국의 대문을 열어놓을 응대한 목표를 내걸고 힘차게 전진하고있다.

조선로동당이 력사의 온갖 시련과 풍파속에서도 한번의 로선상착오나 우여곡절도 없이 승리의 한길로만 걸어올수 있은것은 걸출한 수령들을 모시였으며 자주시대의 지도사상인 주체사상을 튼튼히 틀어쥐고 혁명과 건설에 그것을 철저히 구현해왔기때문이다.

조선인민의 절대적인 지지속에 반석같은 대중적지반을 가지고있는 조선로동당은 앞으로도 이 세상 그 어떤 정치적풍파속에서도 끄떡하지 않고 언제나 백전백승의 한길로만 전진할것이다.

본사기자

나라의 안전과 발전을 위하여

최근년간 로씨야는 사회적안정과 민족적단합을 이룩하고 나라의 전략적안전과 리익을 고수하기 위한 사업에서 성과를 이룩하고있다. 특히 국방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에서 진전을 가져오고있다.

2008년에 로씨야대통령은 군대의 무장장비갱신을 국가의 최우선적인 과제로 제기하고 2020년까지 핵무력강화, 무장장비갱신, 유일적인 항공우주방위체계수립, 해상대국의 지위회복을 기본으로 하는 무력발전방향을 제시하였다. 이에 따라 군사부문에 대한 투자가 확대되고 국가적관심이 높아지고있다.

지난 4일 로씨야우주군은 자기의 명절을 기념하였다. 세계최초의 인공지구위성발사국인 로씨야의 우주군사령관은 이날 우주활동유지 및 발전을 위한 중기전략은 우주에서 로씨야의 리익을 담보하고 수호하는데로 지향되고있다, 이에 있어서 로씨야는 우주를 새로운 군사적령역으로 전변시키는것을 허용하지 않으며 우주공간에 무기를 배비하는것을 금지하는 립장을 견지하고있다고 말하였다.

현재 로씨야의 궤도그루빠에는 110여개의 우주기구들이 있다. 2010년에 우주군은 약 30차에 걸쳐 각이한 용도의 우주기구들을 발사하였다.

로씨야는 국제무대에서 미국과 서방의 세력권확대움직임을 견제하고 군사적영향력을 높이기 위한데 힘을 넣고있다. 이를 위해 무력을 현대화하는것과 함께 중단되였던 먼거리비행과 북빙양 등 전략적인 수역들에 대한 순찰을 재개하였다.

한편 여러 나라들과의 합동군사연습을 비롯한 군사활동이 적극화되고있다. 얼마전에도 까자흐스딴에서 로씨야를 비롯한 상해협조기구 성원국들의 반테로합동군사훈련 《평화사명—2010》이 진행되였다.

이번 훈련을 통하여 로씨야는 지역의 안정과 안전을 보장하는데서 자국무력이 노는 역할과 중요성을 내외에 과시하였다.

세계적인 금융위기, 경제위기속에서도 로씨야경제가 발전추이를 보이고있다. 로씨야정부는 경제를 다각화하며 에네르기주도의 경제발전전략으로부터 새 기술도입에 의한 전략으로 이행하고있다.

로씨야에서는 애국주의교양사업에도 커다란 관심이 돌려지고있다.

올해 5월 로씨야에서는 위대한 조국전쟁승리 65돐을 기념하였다. 로씨야정부는 이날을 계기로 제2차 세계대전시기 쏘련의 역할을 헐뜯는 력사외곡책동을 짓부시고 전승의 력사를 옹호고수하기 위한 사업에 힘을 넣었다. 로씨야대통령 드미뜨리 메드베제브는 어느 한 연설에서 전쟁로병들과 조국을 위하여 목숨을 바친 사람들이 발휘한 위훈과 그들의 삶은 조국에 대한 무한한 헌신성과 복무의 영원한 귀감으로 남아있을것이라고 말하였다.

로씨야에서는 전쟁로병들을 우대하고 보호하며 내세워주고있다.

로씨야의 각계각층 인민들은 전승절을 비롯한 여러 계기들을 통하여 자기 나라의 전승의 력사를 깊이 새기고있으며 민족적긍지와 애국심을 체득하고있다.

애국주의교양은 자라나는 새세대들을 비롯한 로씨야인민들에게 조국수호정신과 민족적긍지감을 심어주는데 이바지하고있다.

오늘은 조로외교관계설정 62돐이 되는 날이다.

본사기자 전영희

미국의 이중적인 반테로정책 비난

라울 까스뜨로 꾸바국가리사회 위원장이 6일 한 연설에서 미국의 이중적인 반테로정책을 신랄히 비난하였다.

그는 꾸바가 여러차례에 걸쳐 반테로투쟁에서의 협력을 미국에 요구하였으나 미행정부가 이에 대해 아무 응답도 하지 않고 오히려 반꾸바테로행위들에 가담한 뽀싸다 까릴레스에게 은신처를 제공해주고있다고 단죄하였다. 그는 자기 나라 정부가 반테로공약을 지키며 꾸바에 대한 테로행위를 계속 감행하고있는자들에게 이중기준을 적용하지 말것을 미국집권자에게 요구하였다고 언명하였다.

【아바나발 조선중앙통신】

이스라엘의 부당한 처사 규탄

▲요르단국왕 아브둘라흐 2세가 3일 팔레스티나민족당국 수반 마흐무드 아빠스와의 회담에서 이스라엘의 유태인정착촌확장책동을 규탄하였다.

그는 이스라엘당국의 일방적인 조치 특히 정착촌확장책동은 중동지역의 평화를 이룩하기 위한 국제적노력들을 파탄시키고있다고 단죄하였다.

그는 팔레스티나인민의 권리를 실현시키기 위해 모든 아랍나라들과 국제공동체가 협조를 강화하여야 할 필요성에 대해 강조하고 독립국가를 창설하기 위한 팔레스티나인민의 투쟁을 지지하는 자기 나라의 립장을 다시금 천명하였다.

▲팔레스티나민족당국 수감자문제상이 5일 이스라엘의 비인간적인 행위를 강력히 규탄하였다.

4일 이스라엘의 TV방송이 눈을 싸매고 수갑을 채운 팔레스티나인녀성수감자의 뒤에서 한 이스라엘군 병사가 춤을 추는 장면을 방영한것과 관련하여 그는 그것은 팔레스티나인 수감자들에 대한 이스라엘군의 비인간적인 학대행위가 계속 감행되고있다는것을 그대로 보여주고있다고 까밝혔다.

자주적인 삶을 위하여

빈곤지역 주민들의 생활조건 개선

중국에서 빈곤지역 경제발전에 힘을 넣어 주민들의 생활조건을 현저히 개선하고있다. 그리하여 현재 전국적으로 빈곤주민수가 1978년의 2억 5 000만명으로부터 3 597만명으로 줄어들었다.

도로공사계획

우간다정부가 최근 나라의 도로상태를 개선하기 위한 공사계획을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전국적으로 32개 구간의 도로들이 새로 포장되며 60개 구간의 도로들이 보수되게 된다. 그 총길이는 1 000㎞에 달한다. 공사는 올해 12월부터 시작되게 된다.

협조

인도네시아와 사우디 아라비아가 5일 경제, 교육, 보건 등 분야에서 쌍무협조를 강화해나가기로 합의하였다.

태양에네르기개발사업

알제리에서 태양에네르기개발사업의 한 고리로 태양열과 가스로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소를 건설하고있다.

라구아므도에 일떠서고있는 이 발전소의 발전능력은 15만kW에 달한다.

공사는 다음해 1월에 완공될것으로 예견되고있다.

다리건설계획

모잠비끄에서 마뿌또와 까멤베를 련결하는 다리를 건설할것을 계획하고 그 준비사업을 적극 추진시키고있다.

길이가 3 500m인 이 다리건설은 2011년부터 시작되게 된다. 정부에서 다리건설에 많은 자금을 돌리기로 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서방의 내정간섭 배격

에짚트인권감시기구가 6일 성명을 발표하여 자기 나라에 대한 서방의 내정간섭을 단호히 배격하였다.

최근 서방의 그 무슨 인권단체들이 에짚트에서 진행될 국회선거가 국제선거감시단의 감시를 받아야 한다고 떠들어댄것과 관련하여 성명은 그것을 나라의 자주권에 대한 침해로 락인하였다.

에짚트는 자체의 선거기구들과 선거감시기구들을 가지고있다고 밝히고 성명은 선거가 나라의 실정에 맞게 민주주의적으로 진행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조선중앙통신】

반제사회주의리념의 승리

지난 9월 26일 베네수엘라에서 국회선거가 진행되였다.

선거결과 챠베스대통령이 이끄는 베네수엘라통일사회주의당이 사회주의혁명을 수호하기 위하여 창립되였으며 진정한 혁명가들과 반제투사들, 사회주의자들로 구성되였다고 강조하였다.

이것은 반제자주, 사회주의를 위하여 투쟁하는 베네수엘라통일사회주의당에 대한 이 나라 인민들의 지지와 신뢰의 뚜렷한 표시로 된다.

이번 국회선거에서 베네수엘라통일사회주의당이 승리함으로써 반제사회주의를 정치리념으로 내세우고 그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을 실시하고있는 챠베스정부는 앞으로 나라의 자주권을 수호하고 산업국유화를 비롯한 제반 민주개혁을 계속 추진시켜나갈수 있게 되였다.

베네수엘라통일사회주의당에 있어서 이번 국회선거는 자기가 내세운 정치리념을 계속 고수하는가 마는가 하는 사활적문제로 되였다.

2008년 3월에 진행된 베네수엘라통일사회주의당 창당대회에서는 당의 기본성격을 반제사회주의로 규정하고 당이 베네수엘라에서 사회주의혁명을 향도하는 정치조직이라는것을 밝힌 강령을 채택하였다. 창당대회에서 위원장으로 선거된 챠베스대통령은 베네수엘라통일사회주의당이 사회주의혁명을 수호하기 위하여 창립되였으며 진정한 혁명가들과 반제투사들, 사회주의자들로 구성되였다고 강조하였다.

챠베스대통령의 지도밑에 베네수엘라통일사회주의당은 이번 국회선거에서 승리를 이룩하기 위하여 당을 조직사상적으로 강화하는데 큰 힘을 넣었다.

지난 4월에 폐막된 당 제1차 비상대회이후 챠베스대통령을 중심으로 하는 당정치국이 새로 구성되고 당안에 조직위원회, 사회운동 및 인민정권위원회, 선거실무위원회, 동원 및 행사위원회, 법률위원회 등 선거를 위한 기구체계가 설립되였다. 이와 함께 전체 당원들을 광범한 대중전취에로 조직동원하기 위한 사업이 활발히 진행되였다.

결과 국민들속에서 집권당에 대한 신뢰도가 더욱 높아지고 챠베스대통령의 사회주의혁명로선을 지지하는 목소리들이 높이 울려나왔다.

국회선거날자가 박두해옴에 따라 베네수엘라의 정치정세는 집권당에 유리하게 발전하였다.

이에 불안과 위구를 느낀 미국은 로골적으로 야당세력에 대한 지지를 표시하는 한편 저들의 어용보도수단들을 동원하여 챠베스정부를 반대하는 일대 선전깜빠니야를 벌리였다.

미국은 베네수엘라가 테로를 《지원》하고있다느니, 마약을 《류통》시키고있다느니, 자국에 《간첩망》을 꾸려놓고있다느니 뭐니 하면서 무근거한 여론들을 환기시키는 방법으로 챠베스정부를 국제적으로 고립시키기 위해 비렬하게 책동하였다.

지어 미국은 베네수엘라의 반정부세력으로 하여금 챠베스대통령이 《암에 걸렸다.》는 헛소문을 퍼뜨리게 함으로써 민심을 소란케 하고 집권당내부를 사분오렬시키려고 획책하였다.

그러나 베네수엘라국회선거결과는 미국의 뜻대로 되지 않았다.

대다수의 베네수엘라국민들이 미국의 악랄한 책동에 맞서 반제자주적립장을 확고히 견지하고있는 집권당에 전적인 지지와 련대성을 표시하였다.

결국 챠베스정부를 반대하는 미국의 음모책동은 물거품이 되고말았으며 주권국가들에 대한 내정간섭행위를 식은 죽 먹듯 하는 미국의 범죄적정체는 세계앞에 더욱 적라라하게 드러났다.

이번 베네수엘라에서의 국회선거를 계기로 챠베스정부의 반제자주적립장을 지지하는 국제적련대성이 일층 강화되였다.

얼마전 꾸바혁명의 지도자 피델 까스뜨로동지는 《미국이 요구하는것은 베네수엘라의 원유이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어용보도수단들을 동원하여 온갖 거짓과 감언리설로 챠베스정부를 거꾸러뜨리려고 발악한 미국을 단죄규탄하였다.

글은 미국이 이번 베네수엘라국회선거에서 어떻게 하나 반정부세력을 내세우기 위해 별의별 수법을 다 적용하였지만 볼리바르혁명과 챠베스대통령이 승리하였다고 지적하였다.

글은 계속하여 이번 선거에서 중요한것은 실천에서 단련된 전투적인 청년들과 녀성들, 당원들이 승리한것이라고 하면서 이로써 베네수엘라정부는 사회주의를 지지하는 절대다수의 국회의원들과 수백만의 투사들을 동원시킬수 있는 집권당을 가지게 되였다고 강조하였다.

지금 베네수엘라통일사회주의당과 정부와 인민은 신심에 넘쳐 반제사회주의리념을 실현하려는 결의를 가다듬고 볼리바르혁명을 다그치고있다.

최근 챠베스대통령은 그 누구도 볼리바르혁명을 가로막을수 없다고 언명하면서 《우리는 사회주의의 발전을 추동하여야 한다.》라고 강조하였다.

정의가 부정의를 타승하는것은 합법칙적이며 력사의 진리이다. 제국주의자들과 그 추종세력들이 자주와 사회주의에로 나아가는 베네수엘라인민을 비롯한 진보적인류의 앞길을 가로막으려고 악랄하게 책동하지만 력사의 전진운동은 그 무엇으로써도 멈춰세울수 없다.

베네수엘라에서의 국회선거결과가 그것을 다시금 확증해주었다.

본사기자

하수인의 체질화된 대미굴종악습

얼마전 미국이 일본에 이란의 아자데간유전으로부터의 완전철수를 요구하였다. 리유인즉 일본의 아자데간유전개발이 《핵무기보유》를 추구하는 이란에 도움을 준다는것이다.

억지도 이런 강억지가 어디에 또 있겠는가.

이란이 깨끗한 에네르기를 생산, 리용하기 위한 세계적추세에 맞게 평화적핵개발을 위해 노력하고있다는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하지만 반미자주적인 정책을 실시하고있는 이란정부를 눈에 든 가시처럼 여기고있는 미국은 이란의 평화적핵계획을 한사코 《핵무기개발》로 몰아붙이면서 이 나라에 군사적위협공갈과 경제제재를 계속 가하고있다. 그것도 성차지 않아 미국은 저들의 대이란제재책동에 다른 나라들까지 합세해나설것을 강박하고있다.

미국이 일본에 아자데간유전에서 손을 뗄것을 요구한것도 그에 따른것이다.

사실 미국의 이 요구는 원유자원을 가지고있지 못한 일본에 있어서 너무도 가혹한것이다.

하기에 일본의 산업계는 물론 다른 나라들까지도 미국의 무리한 요구에 혀를 차면서 설마 일본이 아자데간유전에서 완전철수할 결심을 내리겠는가고 반신반의하였다.

이란의 서남부에 있는 아자데간유전으로 말하면 일본이 몇년동안 많은 품을 들인 대상이다.

2004년 2월 일본은 이란과 아자데간유전을 공동으로 개발할데 대해 합의하였다. 이를 두고 당시 일본산업계는 《일본의 원유외교력사상 가장 큰 성과》라고 법석 떠들었다.

왜 그렇지 않겠는가.

원유소비량의 100%를 수입에 의존하고있는 일본에 있어서 추정매장량이 260억bbl인 세계굴지의 아자데간유전이야말로 국내원유수요의 10%까지 감당할수 있는 《노다지》인것이다. 더구나 아자데간유전은 개발비용이 적게 드는 로천유전인것으로 하여 일본의 구미를 더욱 돋구었다. 아자데간유전의 공동개발권을 획득한 일본은 너무 좋아 폐재를 올렸었다.

그러나 그 기쁨은 오래갈수 없었다. 미국이 엄한 눈초리로 일본을 내려다본것이다. 미국은 저들은 이란을 《죽이지》 못해 안달이 나 하는데 하수인인 일본이 방정맞게 이란과 《협력》하려 하니 몹시 괘씸해하였다.

기분을 잡친 미국은 하수인을 되게 다불러댔다.

미국은 이란과의 《원유외교》를 심화시키려는 일본의 선택이 《국익을 해치는것으로 될것》이라고 으름장을 놓으면서 일본이 아자데간유전개발에 발을 깊숙이 들여놓지 못하게 하였다.

결국 일본은 미국의 끈질긴 압력과 훈령에 따라 울며 겨자먹기로 아자데간유전개발권비률을 종래의 75%에서 10%로 대폭 축소하였다.

그나마도 미국에 엄청난 대가를 치르지 않으면 안되였다.

일본은 인디아양에 파견된 《자위대》함선들로 하여금 미국은 물론이고 《반테로전》에 뛰여든 다른 나라 함선들에까지 연료공급을 하도록 하였다. 그것도 모자라 일본은 미국을 대신하여 이라크전쟁으로 피해를 입은 나라들에 막대한 액수의 《원조금》까지 지불하였다.

그런 식으로 겨우 이란의 아자데간유전에 발을 붙이고있던 일본이였다.

그런데 오늘에 와서 미국은 일본에 아자데간유전에서 완전히 철수하라고 욱박지르지 않는가.

지금까지 미국을 위해서라면 궂은일, 마른일 가리지 않고 충실히 해온 일본으로서는 상전의 무례한 처사에 분하기도 하고 수치스럽기도 하였다. 하지만 미국의 눈밖에 나는 경우 저들의 운명이 비참해질것이라고 생각하고있는 일본은 싫든 좋든 상전의 요구를 공손히 받아들이기로 작정하였다.

지난 9월 30일 일본정부와 일본의 국제석유개발제석회사는 아자데간유전에서 완전철수할것을 결정하였다.

이로써 일본은 국제사회앞에 저들의 체질화된 대미굴종악습을 다시금 드러내놓았으며 상전의 충실한 노복, 하수인의 재기를 다시한번 보여주었다.

더구나 아자데간유전을 개발하던 일본의 국제석유개발제석회사의 필두주주가 현 일본정부의 경제산업상이라는 점을 놓고볼 때 미국이 일본을 얼마나 하찮게 대하고있으며 일본의 대미굴종의식이 어느 정도로 뿌리깊은가를 가히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다.

그런 주제에 일본이 세상에 대고 아자데간유전개발을 일본의 독자적인 대이란외교의 상징으로 극구 찬양해왔으니 그야말로 꼴불견이 아닐수 없다.

일본은 이번에 미국에 맹종맹동한것으로 하여 앞으로 또다시 큰 경을 치게 될것이다.

최근 이란외무성 대변인은 이란에 제재를 가하는 그 어느 나라도 이란의 자원을 리용하지 못하게 될것이라고 언명하였다.

이것은 국내원유소비량의 적지 않은 몫을 이란원유로 충당하고있는 일본에 있어서 《폭탄선언》이나 다름없다.

정부가 미국의 강압적인 요구에 굴복하여 아자데간유전에서 완전철수할것을 결정하자 일본산업계가 불안과 근심에 잠겨있는것은 우연하지 않다.

일본이야말로 대미추종에 환장이 되여 《국익》보다 미국상전과의 종속적동맹관계를 더 중히 여기는 특등친미국가이다.

광범한 국제사회계는 미국상전에게 무턱대고 고분거리는 일본의 비렬한 대미굴종행위를 신랄히 조소비난하고있다.

본사기자 서남일

ㄱ-011857 (정기간행물번호 제13003호) (정기간행물발송특별취급승인 제3호) 전화; 교환 326-2312, 편집국 326-1328, 론설원실 326-5428, 당력사교양부 326-5528, 당생활부 331-4528, 사회주의교양부 321-3528, 공업부 326-0263, 농업부 326-5628, 과학분화부 321-4628, 조국통일부 321-4882, 국제부 326-4728, 사진보도부 326-0712, 특파기자부 321-4328. 편집위원회